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Vol. 103  
2026 가을호



제26권 3호 통권 103호



# Contents

---



## | 표지 사진

2026년 2·28 대학생 하계연수가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학생들이 2·28 민주운동 정신을 함께 되새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6년 7월 8일)



회원가입

- 2 **특집기사**  
청년의 시선으로 만난 2·28  
2026년 2·28 대학생 하계연수
- 9 **특집기사**  
시민과 함께 부른 자유의 노래, 대구의 한여름 밤을  
수놓은 - 제66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 14 **특집기사**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 21 **특집기사**  
대구와 광주, 청년의 동행으로 이어지다  
「2026년도 영호남 청년 교류사업-달빛동행」
- 31 **민주포럼 특집기사**  
2·28정신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 38 **기조연설 - 윤종빈**  
2·28의 시민주권 정신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
- 45 **주제발표 - 채장수**  
「2·28정신」에 대한 보수 이념적 해석
- 53 **주제발표 - 김주형**  
시민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
- 62 **청년의 목소리**  
다시, 목소리가 되는 일-정윤하
- 67 **대구 10월 항쟁.Ⅱ**  
농촌으로 간 10월 항쟁-김상숙
- 75 **저평가 받는 도시-이정웅**
- 87 **상상에서 행동으로-황규진**
- 94 **인문학의 향기**  
땀때이 삼남매와 히프이 삼남매-홍역선
- 97 **2·28 주요소식**  
- 2·28대학 제14기 수료식 개최  
- 독서모임 이파리 간송미술관 견학  
- 「2·28민주운동 66주년 기념 제4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평가회의 개최  
- 2·28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방문 이어져  
- 2026년 대학생 하계연수 후속 간담회 개최  
- 배움으로 잇는 2·28정신, 2·28대학 제15기 개강  
- 2·28청년네트워크 출범, 청년들의 연결은 계속된다.  
- 2·28청년아카데미 제10기 과정, 힘찬 출발!  
-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 하청호 작가와의 만남 개최
- 114 **제 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

##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 연 회 비 정회원 30,000원 이상 / 후원회원 개인 100,000원, 단체 1,000,000원 이상입니다.
-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 예 금 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비 제외)

## 청년의 시선으로 만난 2·28

### 배우고, 나누고, 실천을 고민한 대학생들의 1박 2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대구와 부산 일원에서 ‘2026년 2·28 대학생 하계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대구·경북 대학생이 참여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고 오늘날 청년 세대가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하계연수는 강연과 현장답사뿐만 아니라 팀 빌딩, 분임토의, 결과 발표 등 참가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2·28민주운동을 과거의 역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2026년 2·28 대학생 하계연수’ 개회식



연수 첫날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시작됐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28민주운동 알아보기’에서는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2·28민주운동 주역인 최용호 원로와 직접 만나는 시간이 마련됐다.



**햇불** 2·28민주운동 당시의 경험을 대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최용호 원로

참가자들은 당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과 2·28민주운동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2·28민주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후 참가자들은 부산으로 이동해 민주공원과 민주항쟁기념관을 찾았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요 역사와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2·28민주운동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역을 넘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민중공원과 민주항쟁기념관을 둘러보며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참가자들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는 본격적인 참가자 교류가 이어졌다. 팀 빌딩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소개와 팀명·구호 정하기를 비롯해 사투리 퀴즈, 미디어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처음 만난 참가자들은 조별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고 청년 멘토단은 각 조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도왔다.



팀 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대학생 참가자들

연수의 핵심 프로그램은 ‘청년이 실천하는 2·28정신’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였다. 참가자들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 청년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고 홍보·교육·정책·생활·연구 등 분야별로 청년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SNS와 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2·28민주운동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부터 대학생 대상 교육과 현장답사, 청년 참여와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 일상 속 공동체 참여, 구술채록과 기록 수집·연구모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청년이 실천하는 2·28정신’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는 참가자들

단순히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둘째 날에는 전날 진행한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각 조는 토의를 통해 정리한 아이디어와 2·28정신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발표 후에는 참가자 투표를 통해 우수 발표팀을 선정했다. 이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과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며 1박 2일간의 공식 연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분임토의를 통해 도출한 '청년이 실천하는 2·28정신'을 발표하는 참가자들



분임토의의 우수 발표팀 시상식

연수의 마지막은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된 해양문화체험이었다. 참가자들은 요트 승선에 앞서 안전교육을 받은 뒤 해운대 일원을 둘러보는 요트투어에 참여했다. 바다 위에서 그동안의 일정을 돌아보고 조원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수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다.



**햇불** 해운대 요트투어를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 대학생 하계연수 참가자들

이번 하계연수는 2·28민주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찾아가는 데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이야기하고 또래 청년들과 함께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참가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연을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직접 토론하고 발표하며 2·28정신을 자신들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서로 다른 학교와 전공의 대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역사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주제를 매개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하계연수에서 시작된 만남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수 이후 마련된 참가자 간담회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과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후속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28민주운동이 남긴 민주주의의 가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역사를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실천 방법을 고민했던 대학생들의 1박 2일은 2·28정신을 오늘의 청년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됐다. 



 '2026년 2·28 대학생 하계연수'를 함께한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 시민과 함께 부른 자유의 노래, 대구의 한여름 밤을 수놓은

제66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한여름, 자유를 노래하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곽대훈)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한 ‘2026 제66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이 지난 22일 오후 7시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수많은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2·28민주운동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시민들과 함께 자유·정의·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공연 시작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산을 챙겨 공연장을



햇불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곽대훈 회장, 2·28민주운동 주역

찾은 시민들은 잔디광장과 객석 곳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주최 측은 우천에 대비해 관람객들에게 우의를 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굿은 날씨에도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끝까지 관람하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축사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공연의 메인 무대는 가수 전유진이 장식했다. 전유진은 특유의 감성과 가창력으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극단 한울림은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공연을 통해 66년 전 대구 학생들의 용기와 민주정신을 무대 위에 되살렸다. 이와 함께 2024년 2·28청소년댄스가요제 대상 수상자 김보민과 대구오페라하우스콰이어 등이 참여해 대중음악과 성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장 일원에서는 시민들이 2·28민주운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험부스도 운영됐다.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활용한 타투스티커 체험부스, 공연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인생네컷 부스, 기념사업회 공식 SNS 팔로우와 유튜브 채널 구독을 연계한 ‘친구맺기 부스’ 등이 마련돼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햇볕 2·28민주운동 사진 전시

이번 헌정공연은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과 2·28민주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사업회는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계승해 나갈 예정이다.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자리를 지키며 공연을 즐기는 등 야외 음악당 일대에는 공연 열기가 계속됐다. 특히 토요일 저녁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연장을 찾았으며, 외국인 관람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공연을 즐기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 남겨진 의미와 과제

이번 2026년 헌정공연은 2.28민주운동을 교과서 속 활자를 넘어,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출연진의 전원을 어린이와 청년 세대로 구성하여,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통해 대구가 쏘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신호탄, 그 위대한 2.28의 긍지를 세계와 미래로 널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객석을 가득 메워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그날의 학생들에게 화답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개최

올해로 26회를 맞은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에는 전국 192개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566명편이 접수되며 전국에 다양한 학교에서 출품되었다. 개인출품으로 변경되며 작년과 비교하여 출품수는 줄었지만 작년 145개교에서 192개교로 다양한 지역에 청소년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전 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출발점이 된 2·28민주운동’과 ‘2·28민주운동 이후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였으며 접수 기간은 7월 7일~8월 4일까지였다.

심사는 지난 8월 13일(목) 10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소설가 조두진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노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선정 시인, (필명)여정 시인, 이해경 수필가, 황영은 소설가 총 6명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했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공모전 심사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조두진 소설가, 이해경 수필가, 김노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황영은 소설가, 김선정 시인, 여정 시인

올해 심사 결과, 대상 2명, 금상 12명, 은상 18명, 동상 29명, 입선 38명 등 총 9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운문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마산제일고등학교 조모현 학생의 [북쪽으로 눕는 새의 그림자], 산문부문에는 양상인공지능고등학교 정현우 학생의 [빵점짜리 답안지]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은 대구새론초등학교, 대구성곡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지도교사상은 대구새론초등학교 이근철 교사, 대구성곡중학교 박경연 교사, 경북공업고등학교 김승욱 교사에게 돌아갔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2·28학생문학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늘을 삶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두진 심사위원장은 “학교 단위 단체 참가가 줄고, 학생 개인별 참여가 늘어나면서 작품의 평균 질은 높아졌다”며 “올해는 2·28민주운동을 매개로 학생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위치’로 질문이 확장되는 작품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한편, 제26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1일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26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대상 수상작

운문

### 북쪽으로 눕는 새의 그림자

조 모 현

마산제일고등학교

겨울은 오래도록  
산등성이에 흰 귀를 세우고 있었다.

강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 본 적이 없는데,

물속의 자갈들은  
입술 대신 둥글어진 침묵으로  
계절을 견디고 있었다.

어느 날,  
바람이 나뭇가지의 결을 거슬러 읽자,

들판 가장 낮은 풀잎 하나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꽃이 피는 방식이 아니라,  
얼어붙은 흙이

자기 속의 푸른 숨을  
조용히 밀어 올리는 방식이었다.

새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늘을 가로질렀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북쪽을 향해 길어졌고,

잠들어 있던 골목의 창문마다  
햇빛은 유리보다 먼저  
숨을 틔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봄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눈 녹는 냇물의 우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래된 느티나무는 알고 있었다.

나이테 하나가 생길 때마다  
나무는 안쪽에서 먼저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그래서 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더 푸르게 서 있었고,

강은 더 맑은 얼굴로  
돌들을 데리고 흘러갔다.

나는 지금도  
고향의 저녁 연기 사이를 지나면, 이름 없는 새 한 마리가  
끝내 울음을 삼킨 채,

하늘보다 먼저  
빛의 결을 바꾸던 순간을  
가만히 만져 본다.

그날 이후,  
세상의 봄은  
꽃이 피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하나가  
자기 어둠을 끝까지 밀어 올릴 때,

비로소  
바람의 방향을 바꾸며  
온다는 것을.



## 제26회 2·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 대상 수상작

산문

### 빵점짜리 답안지

정현우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그 영웅들은 시험지를 만든 쪽을 도리어 채점했다.

1960년 2월 28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경북고와 대구고, 경북여고 등 대구의 여러 고등학교는 시험과 임시수업을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불러들였다. 명목은 제각각이었지만 이유는 하나였다. 그해 3월 15일에는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시대 학생들은 관제 시위에 자주 동원되었고, 학교 역시 선거 정치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날의 시험지는 시험지가 아니라 자물쇠였다.

시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학생의 역할은 답을 쓰는 것이다. 문제를 묻는 일도, 배점이 정당한지 따지는 일도 학생의 몫이 아니다. 주어진 보기 안에서 정답을 고르고, 채점을 기다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 시대가 학생에게 요구한 것도 정확히 그것이었다. 시키는 대로 유세장에 서고, 시키는 대로 교실에 앉는 일. 전날 밤 학생들은 모여 글을 썼다. 남아 있는 그 글의 요구는 놀라울 만큼 작았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루의 휴일을 쉴 권리가 있다.

일요일을 돌려 달라는 말이었다. 정권을 바꾸겠다는 말도, 새로운 사상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 글은 오히려 자신들이 “현 성인사회의 정치 놀음”과 무관하다고 못 박아 두었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자기 일요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였다. 다음 날 그들은 시험지를 덮고 교문을 나섰다. 답안을 제출하는 쪽에서 채점하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쳐야 할 것은 답이 아니라 문항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그날 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은 학생이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얻은 것은 거의 없었다. 곤봉과 훈계, 연행과 감시가 있었고, 선거는 예정대로 부정하게 치러졌다. 대통령은 그대로였다. 결과만으로 채점한다면 그날의 답안은 빵점에 가깝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이라 부르고, 4·19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부른다. 승리에 붙은 이름이 아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일에 붙은 이름이다. 뒤에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앞선 사례가 있었지만, 2월의 학생들에게는 참고할 선례가 없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은 승산을 계산할 수가 없고, 계산이 불가능한 자리에서는 계산 대신 의지만 남는다.

그들이 냈던 답안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채점되었다.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그때 사라진 열일곱 살 김주열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그 소식이 전국을 움직였고, 4월 19일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4월 26일 대통령이 물러났다. 벽이 무너진 날은 4월이지만, 벽은 2월에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같은 질문은 시대마다 다른 문항으로 다시 출제되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광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조차 오랫동안 밝힐 수 없었다. 채점 결과 자체가 봉인된 것이다.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요구, 곧 출제자를

우리가 정하겠다는 요구를 들고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거리를 지켰다. 조건과 요구는 달랐지만 질문은 같았다.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 몫을 우리가 결정하게 하라.

나는 첫 문장에 쓴 ‘영웅’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다. 누군가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고, 나는 안전해진다.

하지만 1960년 2월 28일의 그들은 열일곱, 열여덟이었다. 아마 옆자리 아이가 일어나는지 눈치를 봤을 것이고, 성적을 걱정했을 것이고,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들은 부당함이 자기 책상까지 밀려왔을 때 책상을 밀고 나온 학생들이었다. 영웅화는 예우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을 교실에 다시 가두는 두 번째 자물쇠다.

그날 그들이 거부한 것이 바로 ‘학생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규정이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태생부터 그러한 영웅’으로 규정해서 안심한다.

지금도 교문은 열려 있다. 시험은 평일에 치고, 아무도 나를 유세장에 데려가지 않는다. 교실에서 또래가 정부를 비판해도 그 말이 어딘가로 보고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이것이 공기처럼 당연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가장 잘 지켜진 유산은 유산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세대에게 배부된 시험지는 문항 칸이 대부분 비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오답이 아니다. 출제자를 의심하지 않는 습관이다.

나에게는 아직 투표권이 없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으니 크지 않은 것들만 적겠다. 결론이 이미 정해진 듯한 다수결에 습관처럼 손을 들지 않는 것. 누군가 이유 없이 몰릴 때 그 이유를 한 번 묻는 것. 누가 내 편인지보다 누가 절차를 지켰는지를 먼저 보는 것. 그리고 2월 28일이라는 날짜를 아는 것. 전부 채점하는 자리에 서 보는 연습이다. 그날 교실에 남아 있던 백지들이 왜 어떤 만점 답안보다 오래 읽혔는지, 한 번쯤은 각자 답해야 한다.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은 114 PAGE에 있습니다.

## 대구와 광주, 청년의 동행으로 이어지다

**「2026년도 영호남 청년 교류사업-달빛동행」 영호남 청년 60명,  
민주주의의 역사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나누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에서 「2026년도 영호남 청년 교류사업-달빛동행」을 개최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청년 총 6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두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청년들이 서로의 지역과 삶을 이해하며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달빛동행」은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와 광주 청년 간 상호 이해와 연대를 넓히고 영호남 화합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를 슬로건으로 2026년에는 대구 청년들이 광주를 찾고 2027년에는 광주 청년들이 대구를 방문하는 격년 교차 방문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 앞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7월 22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며 청년 간 지속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5·18기념재단의 상호 교류 협약식 모습

본 행사에 앞서 8월 29일에는 대구·경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사전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2·28민주운동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전시관을 관람하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봤다. 이어 달빛동행의 사업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 전체 일정과 이동계획 등을 공유하며 광주 방문을 준비했다.



대구·경북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달빛동행」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첫날인 9월 5일, 대구·경북 참가자들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출발해 광주 참가자들과 만났다. 청년들의 첫 일정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였다. 참가자들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조별 헌화와 묵념을 진행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5·18기록관과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적지 답사가 진행됐다. 오월안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공간 속에서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대구와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의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각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되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햇빛**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는 참가자들



**햇빛**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는 참가자들



**햇불**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달빛동행」 개최식

저녁에는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개최식과 친교행사가 이어졌다. 개최식에서는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양 지역 관계자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영호남 청년 교류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과 조별 게임, 자기소개,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친교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스피드퀴즈와 조별 응원전, 소망탑 쌓기, 의사소통 게임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햇불** 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류하고 있는 대구·광주 청년들

둘째 날인 9월 6일에는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기-지방 청년의 기회와 미래」를 주제로 오픈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가치를 오늘날 청년 세대의 삶으로 확장해 영호남 협력과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에서는 (사)청년으로 이한솔 이사장, 광주에서는 유스사이드 박진감 대표가 사례발표자로 나서 각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며 경험한 활동과 고민을 공유했다. 이어진 오픈마이크에서는 ‘대구와 광주지역 청년의 특성과 활동 현황’, ‘대구와 광주지역 청년들의 기회와 미래’를 중심으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역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일빌딩245에서 진행된 오픈토론회에서 사례발표 중인 박진감 유스사이드 대표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참가자들



취업과 일자리, 지역 정착, 청년 활동 등 지역 청년들의 삶과 맞닿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대구와 광주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도 청년 세대가 마주한 고민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오픈토론회 이후에는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를 주제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광주의 ‘김세형과 들꽃’, 대구 경북대학교 ‘터프시커리’, 영호남 연합 ‘찰리 재즈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총 3개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햇불** 전일빌딩245에서 진행된 달빛동행 문화공연 - 김세형과 들꽃



**햇불** 달빛동행 문화공연 - 터프시커리



달빛동행 문화공연 - 찰리 재즈 오케스트라 앙상블



달빛동행 문화공연 - 참가자 단체 합창

행사 종료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총 4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전체 행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7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1.0%가 ‘대체로 만족’ 이상으로 답했다. 또한 ‘달빛동행이 영호남 청년 교류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9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높은 공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자유의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주요 사적지 답사와 해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의견과 함께,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영호남 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돼 이번 만남을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가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6년도 영호남 청년 교류사업-달빛동행」 참가자 단체사진

이번 달빛동행은 2·28과 5·18이라는 두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오늘의 청년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참여와 소통으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배우는 것에서 출발한 청년들은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 사업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영호남 청년들이 일회성 만남을 넘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영호남 청년 교류사업-달빛동행」은 2026년 대구에서 광주로 향한 첫 번째 동행에 이어 2027년에는 광주 청년들이 대구를 방문하는 두 번째 동행으로 이어진다. 올해 광주에서 시작된 만남이 내년 대구에서 다시 이어지며 두 지역 청년들의 교류도 계속될 예정이다. 

## 2·28정신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 2026 「제26차 2·28민주포럼」, 국회에서 개최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주호영 국회의원·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 정치·학계·언론계 인사 한자리에...민주주의의 계승과 혁신 방안 모색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곽대훈)는 주호영 국회의원,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으로 9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28민주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제26차 2·28민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재옥·김상훈·강대식·김기웅·이달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홍기 3·15의거기념사업회 신임 회장과 황진호 이사,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회원,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곽대훈 회장은 환영사에서 “2·28민주운동은 3·8민주의거와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민주주의는 한두 번의 투쟁과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숭고한 가치이자 국가 발전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시작되는 논의가 2·28정신의 전국적 확산과 미래 세대 계승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66년 전 대구의 학생들이 보여준 자유와 정의, 용기와 참여의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웅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축사에서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특정 시대에만 머무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책임과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살아 있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2·28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은 엄기홍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인 「2·28정신에 대한 보수이념적 해석」에서는 채장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정재요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윤왕희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이귀전 세계일보 정치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이념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2·28정신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짚었다.

두 번째 주제인 「시민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에서는 김주형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으며, 신정섭 숭실대학교 교수,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 정치적 갈등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1960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보여준 자유와 정의, 용기와 참여의 정신을 오늘날의 민주주의 문제와 연결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가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학술·교육·문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당한 일요등교 지시에 맞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이후 3·8민주의거와 3·15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햇불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2·28민주포럼에서 광대훈 회장과 윤재옥·김상훈·강대식·김기웅·이달희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햇볕** 광대훈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제26차 2·28민주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햇볕** 여행웅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원로자문회의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햇불** 제26차 2·28민주포럼 참석자들과 함께한 단체 기념촬영



**햇불** 「2·28시민주권 정신과 한국민주주의의 미래과제」를 주제로 기초연설을 하는 윤종빈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모습



햇볕

「시민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하는 김주형 서울대학교 교수의 모습



햇볕

「2·28정신에 대한 보수 이념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하는 채장수 경북대학교 교수의 모습



햇볕

제26차 2·28민주포럼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한국 민주주의 미래 과제 논의 모습



제26차 2·28민주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



## 제26차 2·28 민주포럼

### 2·28민주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계승과 혁신

|                               |                                                                                                                                                                                                                                                    |
|-------------------------------|----------------------------------------------------------------------------------------------------------------------------------------------------------------------------------------------------------------------------------------------------|
| <b>개회식</b><br>13:00~14:30     | <b>개회사</b> <b>곽대훈</b> 서울 2025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br>축사 및 사진 촬영                                                                                                                                                                                            |
| <b>기조연설</b><br>14:30~14:50    | <b>한국 민주주의의 한주소와 미래방향과 과제</b><br><b>윤종현</b> 한국통치학회 회장, 영서대학교 교수                                                                                                                                                                                    |
| <b>발제 및 토론</b><br>14:50~17:30 | <b>1. '2·28정신'에 대한 첫수이념적 해석</b><br><b>재장수</b> 경희대학교 교수<br><b>2. 윤형희</b>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b>정재요</b> 숙명여자대학교 교수<br><b>3. 시연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b><br><b>김주형</b> 서울대학교 교수<br><b>4. 신정섭</b> 숭실대학교 교수 <b>이소영</b> (사)국립현대미술관<br><b>5. 장현철</b>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일시: 2026 9.11. (금) 14:0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주최: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국회의원회관

햇불 웹포스터



## 2·28의 시민주권 정신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

윤 중 빈

한국정치학회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은 무엇이였을까. 헌법과 국회, 정당과 정치지도자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을 돌아보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 있었다. 바로 '시민'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은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거대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들고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곧 국가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사실이었다.

2·28민주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4·19혁명의 전주곡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2·28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준다. 제도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시민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환기했고, 그 행동은 다음 시민의 행동을 불러냈다. 오늘 한국 민주주의가 겪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설 길도 이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2·28의 시민주권 정신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의 뜻이 책임 있는 권력과 타협의 정치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

## 시민이 열어 온 민주주의

2·28민주운동의 첫 번째 의미는 자발성에 있다. 학생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동원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서 스스로 행동했다. 두 번째 의미는 양심과 자유다.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때 저항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 의미는 역사적 연속성이다. 2·28은 한 도시의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었다.

이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뚜렷한 특징이 보인다.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시민’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정치 엘리트가 일방적으로 베풀 결과가 아니었다.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했고, 국가권력의 한계를 설정했으며, 마침내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새로운 헌정질서를 이끌어 냈다.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는 시민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쟁취한 제도적 성취다.

87년 체제의 민주적 소임은 성공적이었다. 1987년 이후 주기적인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었고 군부의 정치 개입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었고 국민의 기본권도 크게 확대되었다. 대한민국은 39년 동안 하나의 헌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압축적 민주화의 역사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취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위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정치적·헌정적 위기를 겪더라도 시민의 참여와 헌정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로 돌아오는 역량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시민이 목소리를 냈고 제도는 다시 작동했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가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민주적으로 극복해 왔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 높은 제도 수준과 낮은 정치 만족의 간극

그럼에도 국민은 정치에 만족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수준과 시민의 역량은 높아졌는데 정치는 왜 반복해서 불신을 받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정치가 작동하는 제도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사람의 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사람만 바꾼다고 정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좋은 정치인을 선출하는 일만큼이나 좋은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중요하다.

첫 번째 문제는 승자독식적 권력구조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에서 선거의 승자는 강한 권한을 갖는 반면, 패자는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권력의 획득과 상실에 걸린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대통령선거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보다 정치적 생존을 건 대결에 가까워진다. 승리는 국정 전반을 독점해도 된다는 권한으로 오해되고, 패배는 협력보다 전면적 저항을 선택하게 만든다. 선거가 끝나도 대립이 지속되는 이유다.

둘째, 표결 민주주의와 정치의 사법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는 51 대 49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양보하며 합의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국회가 숙의와 타협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동한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당연히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정치가 스스로 풀어야 할 갈등까지 판결에 맡긴다면 정치의 공간은 줄어들고 승복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세번째 문제는 정서적 양극화와 중도정치의 부재다.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상대 진영의 존재와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단기적인 정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커진다. 민주주의는 차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차이를 인정할 상태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87년 체제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가 아니다. 87년 체제가 이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 방향은 분권과 협치다. 권력구조 개편의 목적은 권력을 나누면서도 누가 어떤 결과에 책임지는지 분명하게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집중시키면서도 재선 기회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한다. 이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 중임제의 의미는 임기를 단순히 연장하는 데 있지 않다. 국정을 잘 운영한 정부에는 한 번 더 책임을 맡기고, 그렇지 못한 정부에는 선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권한과 책임의 연결을 강화하는 장치인 셈이다.

결선투표제 역시 선거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반의 지지를 얻으려면 후보와 정당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넘어 다른 정치세력 및 유권자와 대화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연합과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정 운영에서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협의제 민주주의와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의 가능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 가운데 누가 더 강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다.

선거제도 개혁도 같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선거 구제는 승자에게 의석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개혁의 목표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의석에 더 충실히 반영하는 데 있어야 한다. 양극단 사이에서 의견을 연결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할 제도적 공간도 필요하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준 다당제 중심의 연합정치는 갈등을 협상 가능한 의제로 풀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정파를 넘어 장기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규칙을 바꾸는 당사자가 그 규칙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정치개혁은 언제나 어렵다. 그래서 시민에게 개혁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폭넓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도개혁의 정당성은 결과뿐 아니라 숙의와 합의의 과정에서도 나온다.

## 제도를 움직이는 민주적 문화

제도를 바꾼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찌면 헌법을 고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먼저 승자의 절제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민주적 위임은 법과 절차, 소수 의견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패자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다음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승복은 정치적 견해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다.

여당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국정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국회는 다시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갈등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타협을 만드는 것이다. 타협은 원칙 없는 야합이 아니다. 상충하는 요구 가운데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의 이유와 책임을 국민에게 밝히는 민주적 과정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이러한 대의정치를 보완할 수 있다.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토론한 뒤 의견을 형성하는 숙의형 공론장은 팬덤 정치와 알고리즘이 증폭시키는 극단성을 넘어설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공론장이 선출된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복잡하고 갈등이 큰 의제에서 시민의 숙고된 판단을 정치 과정에 연결하고,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정치문화의 변화는 정치권에만 요구할 일이 아니다. 시민도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편의 시민을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은 위기의 순간에 광장에 모이는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 사이의 일상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의견을 듣고, 공적 결정의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시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2·28 정신을 미래 민주주의 제도로

1960년 2월 28일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여기서 논의하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 책임총리제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고 있었다. 국가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원칙이다. 그 정신은 4·19로 이어졌고, 5·18을 거쳐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었다. 시민의 용기와 참여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이제 현재 세대의 책임은 그 정신을 현재의 정치제도와 일상의 정치문화 속에 구현하는 일이다. 2·28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념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점검하고 미래의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가 정치를 혐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공적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부르지 말고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음 세대가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토론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2·28의 학생들이 보여준 용기는 영웅적인 한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당한 권력에 질문하고, 공적 문제에 의견을 내며, 다른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일상의 태도와 연결된다. 학교와 지역사회, 정당과 국회도 청년의 참여를 행사나 구호에 한정하지 말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참여의 경험이 축적될 때 시민은 제도를 신뢰할 근거를 얻고, 제도 역시 시민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치개혁도 시민의 삶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혁 이후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늘어나는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대표되는지, 선출된 권력이 결과에 책임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민주권’은 선거일에 한 표를 행사하는 권리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의 작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적 결정에 참여하며, 잘못된 제도를 평화적인 절차로 고쳐 가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87년 체제는 시민이 쟁취했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정치에서 권력을 나누는 정치로, 표결로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는 정치로, 진영의 요구만 좇는 정치에서 시민의 삶에 답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1960년 2·28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 1987년의 시민들은 그 문을 더 크게 열었다. 이제 우리의 몫은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문을 넓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도약은 더 강한 권력보다 더 잘 나누어진 권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2·28의 시민주권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 ‘2·28정신’에 대한 보수 이념적 해석

**채장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정치·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가로지르면서,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는 보수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의 심장’으로 호명되는 대구는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얼마나 체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 글은 1960년 대구에서 발생한 ‘2·28민주운동’(이하 2·28)의 지향과 가치를 함축하는 ‘2·28정신’에 내재된 보수 이념적 함의를 대구 보수의 이념적 재정립을 위한 역사적 기반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2. 보수 이념과 대구의 보수

정치 이념으로서 보수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태도’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능력과 조건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질서가 잘 잡힌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특정한 이념이다. 따라서 보수는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입장을 가진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사회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선별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회 변화의 범위와 강도를 최소화하면서,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방향성인 ‘전통적 가치의 현재화’를 지향한다. 이것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누진적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 가치와 질서에 부과되는 ‘새로운 도전’의 충격을 가능한 수준에서 최소화하려는 보수의 일관된 전략이기도 하다.

한편 대구의 보수는 외형으로는 상당히 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다소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도 한국의 보수를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하고 있는 대구의 보수는 전통적 보수 이념과는 이념적으로 상이한 예외성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 대구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변화 자체에 저항하면서, 때로는 다양성과 공존, 법치와 같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규범에서 이탈하는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대구 보수의 이러한 태도는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이념인 보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 3. 전통사상의 맥락

2·28정신의 보수 이념적 가치는 우선 ‘유학적 논거’와 ‘민족애’라는 전통 사상의 맥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 유학적 논거

기본적으로 보수는 일상의 관습적인 상태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본능적인 기질 혹은 심리적인 태도와 같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원칙과 지향, 이를테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정하고 일반적인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한국의 보수가 외부에서 이식된 ‘압축적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신했던 전통사상 맥락의 다양한 가치를 2·28정신이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사상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아닌 유학이며, 따라서 유학은 서구적 근대성에 대응하는 조선의 보수적 이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유학은 서구의 근대성이 최초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원조 보수세력의 이념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의 지배 이념으로서 그 자체가 정통의 대변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유학과 2·28정신에 체현된 전통사상의 핵심적 가치는 ‘올곧음’과 ‘나아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올곧음은 정의(正義)를 의미하며, 전통으로 명분을 강조하고 의리의 실천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의 핵심이다. 이것은 ‘천리(天理)에 기반한 보편성의 규범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인식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마땅함을 실현하는 의리(義理) 사상’의 실천이다. 여기서 2·28은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대의명분을 실천하는 올곧음을 표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는 ‘2·28 결의문’(이하 결의문)의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라는 내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정의와 진리만 배워온 젊은 지성들은 정의에 배치되는 불의를 직시했을 때 무조건 아부굴종하는 지성을 싫어했던 것이며, 여기에 불만을 채고 젊은이들은 역사적 과제의 해결에 헌신 참여하려는 사회적·행동적 지성이 강렬하게 움직였던 것”이라는 2·28 주역의 회고를 통해서 재차 확인된다.

둘째, 나아감은 정치적·사회적 폐단이 누적되었을 때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하려는 ‘수시변통(隨時變通)의 개혁’을 추구하는 경장(更張) 사상이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하의 공론(公論)을 주도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창신(創新) 정신을 의미한다. 이처럼 나아감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요소와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선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의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근대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적 권리를 주장한 2·28은 '모두가 옳다고 인정하는 논의로서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공론의 형성을 통한 정치참여의 명분을 확보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를 고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경장의 의미로서 나아감을 표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의문에 나타난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라는 시대 인식과 함께,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라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호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나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생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일요등교를 해명하라!’와 같은 당시 학생들의 공론적 권리를 표현한 구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된다.

## 2) 민족애

울골음 및 나아감과 함께, ‘민족애’는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추출할 수 있는 2·28정신의 주요한 보수의 이념적 가치이다. 역사적으로 민족은 근대 보수주의와 필연적으로 접합된다. ‘신(神)에서부터 하찮은 벌레에 이르는 존재의 거대한 사슬(a great chain of being)’로서 유기체적 공동체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적 지혜와 규범에 기초하여 사회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특징적 이념인 보수주의와 근대의 규정적 공동체인 민족은 상호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일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형성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의 일차적 덕목인 애국심과 민족애, 또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민족애와 조국애는 구성원들이 속한 거대한 정치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기반으로, 역사적

전통의 계승·향유 및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 등의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설명하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라는 결의문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민족애에 대한 2·28의 관점은 결의문의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라는 문장에서 잘 나타난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면, 당시의 지식인 학생들에게 민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 4. 민주주의의 맥락

이제 보수주의와 초기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2·28의 보수 이념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 1)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구를 포함한 한국 보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충될 이론적 근거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는 초기 민주주의 건설기의 일반민주주의(general democracy)적 과제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대의제, 법의 지배, 선거제도-다수제, 일정 수준의 자유와 평등, 교육 등 민주주의 초기 단계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기초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제도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와도 그 의미가 호환된다. 이것은 권력 경쟁이나 정책 결정 과정의 형식과 절차의 민주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참여 등 제도적 평등성의 정착에 주목하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보수주의와 초기 민주주의의 상호 친화성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성향적으로 19세기 보수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보다는 왕정과 같은 신분적 계급의 통치를 좀 더 선호했다. 그러나 초기 민주주의가 전개되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현실적·절충적 성향의 보수주의는 그에 부합하는 다소 복합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즉 기존의 보수적 가치와 문화를 최대한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역기능을 견제하는 가운데, 당시 사회적 변화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면서 점진적·선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경향을 일부분 수용했다.

## 2) 2·28과 민주주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특히 초기 민주주의의 건설기에서는 더욱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했다. 보수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의 급진적인 성향이 강한 민주주의 유형과는 기본적인 관점을 달리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 일반과 대립하는 이념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주의는 법치나 의회와 같은 권위적 제도를 통하여, 대중의 무질서한 욕망을 관리하고 사회의 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사실 대구의 보수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는 민주주의적 권리 성취를 위하여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2·28정신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자 4월 의거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2·28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대외 의존적 분단체제·경제체제가 구축되면서 초기 단계 민주주의 과제의 실현이 지체되던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반민주주의적 요구를 집단적으로 제기한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즉 2·28은 당시 한국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사회적 제한요인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운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초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권리를 주창하면서 당시 구성원들의 ‘정치적 일반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민주화운동이었다.

이처럼 2·28은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주창했던 그 자체로서 ‘민주화운동’, 즉 민주주의적 지향이 분명한 사회운동이었다. 특히 초기 민주주의 단계에서 더욱 공고화되는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친화적·보완적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2·28의 민주주의’는 초기 국민국가 건설기 보수 이념의 지향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속시킬 새롭고 안정적인 질서로 정착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제의 실현을 주창했기 때문이다.

## 5. 나오며

적어도 지역 연고의 박정희 정권이 등장한 이후 반공과 지역주의를 두 축으로 삼은 소위 '대구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기 이전까지, 대구는 한국 사회의 근대적 가치를 주도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는 전통과 질서를 기본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보수 이념과 스스로 결별하여, 만성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수를 정치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2·28정신에 구현된 보수 이념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문화·지향·정서와 지속적으로 갈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수의 이념적 기반을 스스로 침해하는 대구 보수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든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대구의 보수는 '이념적 정상화'의 길라잡이가 될 2·28정신의 다양한 보수 이념적 가치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2·28정신의 재구성은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해석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2·28의 역사가 소수 인사들이 주도하는 제한된 기억과 관행적 기념으로 화석화되는 현실은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2·28정신의 현재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의 문제 제기와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표준적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전환기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경고는 이제 낮설지 않다. 위기의 양상도 변화하여,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하락이나 정치적·정서적 양극화 등의 일반적인 흐름을 넘어 권위주의화의 경향이 뚜렷하다.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극우 세력의 확산이나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한 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을 언급할 것도 없이,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극도의 혼란 속에서 헌정 질서의 근간이 위협당한 한국의 최근 상황이 이러한 흐름을 극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관찰자들도 주목하듯이,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독특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대통령 탄핵과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예측하지 못한 사태들이 연속되었지만, 그 와중에 민주주의의 최소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나침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성취는 물론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처럼 위기와 회복의 드라마가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체질적 허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적 허약성

예컨대 2016~17년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고 선거를 거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꽤나 빠른 속도로 헌정질서의 정상성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이 더 건강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더 확산하였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심한 혼란을 극복한 것은 위대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 한국정치의 문법은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양극화된 정보생태계도 그대로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면 그 위기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타협과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강한 승자독식형 제도배열, 이런 제도에 의해 유도되고 거꾸로 이를 강화하는 정치문화, 위축되고 세력동원에 취약해진 시민사회와 공론장, 양극화되고 거칠어진 정보 생태계 등등이 모두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어지러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AI 기술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어떤 도전과 가능성을 제기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에 더해 심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는 흐름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담론에서 큰 규범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능력주의’와 ‘공정’을 바로 이러한 취약성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불안한 개인들의 자기보존이 지상명령이 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을 제로섬적 경쟁 관계 안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호혜적인 권리공동체의 동료 시민으로서 감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의 시민들은 집합적 삶이 최대한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함께 만들어 가고 서로에게 보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현재 한국 사회가 이러한 정초 합의(foundational consensus)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까?

## 참여의 확대가 답이 될 수 있을까?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난맥상을 풀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은 결국 법과 제도의 개혁을 핵심적인 매개로 할 것이다. 예컨대 선거제도나 정당법 등을 개정하여 더 다양한 목소리가 더 활발하게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정치적 책임성도 대표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재의 제도배열과 정치 관련 법규 및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 개혁에 더해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칭하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현 정부는 국민의 의견과 의지가 정치과정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접점을 넓혀가는 것도 그 일환이겠고,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숙의공론화’의 확산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시민참여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만약 제정된다면 이 법은 시민 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20세기 중후반 이후 활발하게 탐색된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의 흐름을 종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실험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이다. 주기적 선거를 통한 ‘권력의 위임과 사후적 책임 묻기’를 넘어, 정치적 의견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숙의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민주적 혁신에 관한 연구와 실천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미국,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걸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어떤 참여인가?

한국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또 부분적으로 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기성 정치권과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고려하면 시민참여가 한국 정치가 봉착한 난관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책 형성의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치를 통해 정치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집합적 결정의 수용성 및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과거 온라인 국민청원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무분별한 낙관은 위험하다. 정교하게 설계되고 섬세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냉소를 가져오고, 자칫 제도 개혁과 창의적 실험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른바 ‘참여의 다양성’ (varieties of participation)에 대한 것이다. 즉, 참여의 양적 확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의 참여가 가지는 정치적 효과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적 혁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일원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예산제 등에서 보듯이 자원에 기반해 시민들의 폭넓고 자유로운 참여에 방점을 둘 수도 있고(‘참여’), 숙의적 미니공중(deliberative mini-publics)에서처럼 참여단 내부의 질 높은 학습과 토의를 강조할 수도 있으며(‘숙의’), 직접입법의 여러 사례처럼 시민들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는 결정권을 중심에 둘 수도 있다(‘직접’).

그런데 이 세 목표—참여, 숙의, 직접—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경쟁 내지는 충돌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숙의’의 지향이 비대해질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극소수 시민들 사이의 토론회와 매한가지가 되어버릴 수 있고, 반대로 ‘직접’이나 ‘참여’에만 몰두한다면 ‘숙의’를 결여한 세력화의 논리가 전체 과정을 지배할 우려가 없지 않다. 시민참여 제도를 설계할 때 이 세 목표 중 무엇을 어떤 비중으로 추구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간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의 이론적 논의에서 별개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던 이 각각의 가치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결합해 제도화해야 한다.

## 정치적 대표의 혁신적 재구성

이상의 논의는 정치적 대표(political representation)의 문제로 연결된다. 민주적 혁신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시민참여를 매개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전형적인 대의민주주의 모델에서 가능한 정치적 대표 체계를 진일보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선거를 통한 대표는 물론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정치적 대표의 방식이라는 점을 넘어서 그 규범적인 의미도 절대 사소하지 않다. ‘1인 1표’라는 민주적 선거의 근본 원리는 그 한 표 자체의 고립된 영향력을 넘어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그리고 평등한 방식으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대표에 내재한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대표자의 구성이 사회경제적 엘리트들로 편향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인지적 다양성이 저하되고 정치권이 특권화 내지는 카르텔화 하는 문제, 선거 경쟁이 촉발하는 강한 당파성이 미래지향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 등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이미 선거를 통한 대표를 넘어서는 동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사회적·기능적 대표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등 조직화된 행위자들에 의한 대표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대표 방식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통한 대표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제 등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관심과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하여 공적 사안에 대한 토의와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참여의 문호를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대표 방식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민주적 대표의 여러 규범적 지향을 동시에 충족하지는 못한다. 선거를 통한 대표의 맹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사회적 대표의 경우 강한 자금력과 동원력을 갖춘 조직화된 이해관계를 과대대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주변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결사체적 활동의 생태계가 균형 있게 조성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선택에 기반한 대표의 경우도 가장 선명한 선호나 강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참여를 확대한다는 일반론적인 명분에 가려 포용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책결정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시민의회(citizens' assemblies)를 포함한 추첨기반 대표의 방식이다. 통계적 대표성에 기반해 일반 시민들의 '소우주'(microcosm)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과정의 주요 행위자들 중심의 대표 체계와는 달리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의 표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 외적인 제약이나 고착된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민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특성으로 인해,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숙의를 통해 숙고된 판단을 도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질 높은 숙의의 환경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타협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의제에 접근할 유인을 제공한다.

즉 시민의회와 같은 추첨기반 제도는 여타의 정치적 대표 방식과 비교할 때 참여의 개방성, 관점의 다양성, 과정의 숙의성, 관용과 타협적 태도의 장려 등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적 연구도 참가자들이

인식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에서 공히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입증하고 있다. 선거를 통한 대표, 사회적 대표, 자기선택 기반 대표 등의 세 가지 정치적 대표 방식에서 결핍되기 쉬운 중요한 민주적, 인식적 가치를 추첨기반 대표 제도가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대표 체계를 다층적이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복합적 대표(complex representation)’의 접근은 이미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지향으로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 민주적 혁신의 생태계

이러한 혁신적 시도의 성공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포용성, 숙의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여 포럼이 대의제 정치과정 및 정치적 공론장과 맺는 관계이다. 과거 한국의 몇몇 공론화 사례에서처럼 고립된 이벤트처럼 진행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의회나 정부의 심의 또는 국민투표 등 공식 정치과정과 긴밀히 연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공공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의회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한국 정치가 직면한 국가적, 지역적 난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추첨기반 참여 포럼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의제와의 연계 속에서 정치과정 전반의 참여성과 숙의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만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대의제 정치과정과 때로는 경쟁하면서도 더 큰 맥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시민발의 제도 활성화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활용 등 다른 시도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지역별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경로로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중적 거버넌스의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전환적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내실 있는, 더 효과적인 민주적 혁신의 실험이 필요하며, 시민의회 등 추천기반 참여 포럼의 충실한 구상, 설계, 운영, 평가와 적절한 형태의 제도화 노력은 여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시, 목소리가 되는 일

정윤하

경북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장



대구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동네 산청에서 나고 자란 내게, 대구는 어쩌다 한 번 방문하는 크고 복잡한 타지였다. 소멸위험지수의 가장 낮은 곳, 즉 소멸의 위기가 가장 가파르게 닥쳐온 지역을 떠나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광역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거대함이 주는 묘한 막막함이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마주하던 높은 건물들과 차선이 넓은 도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은 나의 평소 생활 반경과는 무관한 풍경처럼 보였다.

대학 입학과 함께 이 낯선 도시에 긴 짐을 풀었을 때, 처음엔 모든 것이 겹돌았다. 그러나 캠퍼스의 넓은 오르막길을 오르고, 북문의 식당가에서 끼니를 때우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적응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거창한 결심이 있었다기보다 자주 타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외우고, 자취방 가는 길의 가로등 불빛에 익숙해지고, 학교 앞 단골 식당 사장님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이 거대했던 도시는 점차 구체적인 나의 ‘생활’이 되어갔다.

그러나 대구가 일상으로 자리 잡을수록, 캠퍼스 안팎에서 마주하는 풍경들은 종종 묘한 기시감을 안겼다. 산청을 떠나올 때 내가 느꼈던 ‘더 큰 곳을 향한 이동’의 감각이, 이곳 대구에서도 모양만 바뀐 채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진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종착지는 대개 ‘서울’이었다. 취업 준비도, 대학원 진학도, 더 나은 기회도 결국은 수도권에 있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명제처럼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누군가는 틈틈이 편입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방학마다 대외활동을 위해 미련 없이 상경행 기차표를 끊었다. 대구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만족스럽더라도, 이곳은 결국 오래 머물 곳은 아니라는 암묵적인 동의.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하는 듯한 거대한 대합실. 그것이 내가 관찰한 오늘날 지역 대학 청년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공기였다.

대합실에 머무는 사람들은 벤치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 어차피 곧 떠날 기차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정거장에서는 누구도 옆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내일이면 떠날 사람에게 굳이 긴 안부를 묻지 않듯,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이 도시와 공동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역에 남겨진 문제들이나 학교의 낡은 인프라에 대해 묻고 따지기보다는, 각자의 스펙을 쌓아 이곳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졌다. 모두가 각자의 기차를 기다리는 이 정거장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요즘 뉴스와 신문에서 지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단연 ‘소멸’이다.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서늘한 농담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언론과 행정은 지역을 오직 숫자로만 건조하게 설명한다. 인구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줄었는지, 20대 청년층이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지방을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물론 통계는 뚜렷하고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청에서 살았고 이제는 대구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지역은 결코 숫자만으로 양상하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다. 인구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마저 똑같은 비율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청년 유출이라는 통계표의 마이너스 기호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그곳만의 고유한 기억을 품고 있다. 지역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시공간을 점유하며 나누는 ‘이야기’들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방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워지는 일종의 ‘목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을 말하는 언어가 빈약해질수록 공동체의 감각도 함께 희미해진다. 체념은 가장 조용하고 확실하게 지역을 지워나간다.

대학의 학생사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소멸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작은 공론장이었다. 늦은 밤 빈 강의실과 회의실에서 마주한 학생사회의 실무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거창한 권력을 쥐거나 화려한 무대에 서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말보다 ‘번역’한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느낀 적도 있다. 개인이 겪은 불편을 여러 사람이 논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옮기고, 학생들의 언어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언어는 종종 파편화된 불만이나 아쉬움에서 출발한다. 전공 수업의 여석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단과대 건물의 냉난방기가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오래된 강의실의 낡은 책걸상이 불편하다는 식의 일상적인 파열음들이다. 반면 행정의 언어는 차갑고 굳건하다. 언제나 예산의 한계나 선례의 부재, 혹은 장기적인 수리 계획을 이유로 든다. 학생사회 실무진의 역할은 단순히 “불편하다”고 외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불편함’의 감각을 행정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의 논리’로 치환하는 일이었다.

차가운 행정의 단어들 앞에 학생들의 날것 같은 진심을 훼손 없이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불만들이 향하는 진짜 맥락을 짚어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상에 올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보다, 무엇이 말해졌고 무엇이 아직 말해지지 않았는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일이었다. 문서에 채 적히지 못한 불만들을 가만히 듣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기꺼이 공론장에 올리는 끈질긴 번역의 과정. 그것이 곧 정제된 공동체가 멈추지 않고 굴러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다.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공적인 언어로 꼬집어내는 일의 무게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머물고 있는 대구의 역사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등교 지시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섰던 대구 학생들의 역사다. 우리는 흔히 그날을 한국 민주주의의 도화선으로 기억하지만, 기념탑 앞을 지날 때마다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건의 웅장한 역사적 타이틀보다 그 주체가 다름 아닌 ‘학생’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학생들은 사회를 쥐락펴락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이 도시를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정거장으로 여기지 않았다. 부조리한 지시 앞에서 기꺼이 밖으로 나섰다. 60년대의 대구 학생들도 어쩌면 교실 안의 웅성거림과 시민들의 침묵 속에 묻혀 있던 답답함을 가장 먼저 읽어내고, 그것을 거리의 분명한 언어로 ‘번역’해 낸 첫 번째 통역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2·28은 단순히 불의를 이겨낸 투쟁의 역사라기보다, 일상을 나누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걸고 기꺼이 안전을 던졌던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로 다가온다.

오늘의 대학 캠퍼스는 66년 전 선배들이 마주했던 엄혹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띠고 있다. 불의한 권력이 내리는 노골적인 지시 대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구와 지역에 대한 막연한 체념이 그 자리를 덮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남아 내일을 도모해야 하는 청년들의 위치와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은 청년들이 서울행 기차를 타고 모두 떠나버리는 어느 특정한 날에 일순간 증발하는 것이 아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더 이상 묻고 답하지 않을 때, 서로의 삶에 개입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입을 다물 때 비로소 서서히 소멸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창한 정책 구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의 학교 안뜰을 이야기하고, 동네의 낡은 인프라에 대해 묻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 그 평범하고도 끈질긴 발화와 번역들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 이 위태로운 지역 역시 체념을 딛고 내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에 온 지 2년이 되었다. 여전히 나는 이 도시의 복잡한 골목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어떤 공동체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 66년 전 늦겨울, 대구의 학생들이 거리에 남긴 발자국 역시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 거대한 대합실이 되어버린 도시에서, 우리는 각자의 기차를 기다리며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서로의 이야기를 엮어내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목소리가 될 것인가. 

대구 10월 항쟁.Ⅱ

## 농촌으로 간 10월 항쟁

김상속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대구에서 밀려난 시위대, 농민들과 합세하다

1946년 10월 2일 저녁, 대구 시내에 미군 장갑차와 기관총 부대가 들어오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대구에서 밀려난 시위대는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 경북 여러 지역의 농민들과 합세했다. 항쟁은 달성·영천·칠곡처럼 대구와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일어났고, 곧 군위·의성·선산을 거쳐 경주·영일·예천·상주와 경북 북부로 번졌다. 경북에서는 10월 초 불과 며칠 사이 22개 군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농촌의 항쟁은 대구에서 일어난 시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경북의 거의 모든 군에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지역에 따라 농민조합과 민주청년동맹도 활동했다. 농민들은 미군정의 식량 공출과 토지개혁 지연, 친일 경찰과 관리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946년 초부터 경주·왜관·의성·현풍 등에서는 식량 공출에 반대하는 시위와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대구의 항쟁은 이미 농촌에 쌓여 있던 불만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다.

항쟁이 전개된 모습은 지역마다 달랐다. 경찰과 주민 사이의 협상으로 유혈사태를 피한 곳이 있는가 하면, 주민 수천 명이 경찰서와 군청을 장악한

#### 〈약력〉 김상속

사회학박사(경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0월 항쟁』, 『대구의 5·18, 두레양서조합사건』 저자, 제10회 임종국상(학술부문) 수상

곳도 있었다. 경찰이 미리 경계를 강화한 지역에서는 항쟁 주도자들이 군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 마을과 산지에서 경찰과 교전했다. 경주 안강에서는 지서장 채승이 좌우 양쪽과 협상해 충돌을 막았다. 미군 방첩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6일 지원 경찰이 좌익 주동자로 지목된 주민 약 70명을 체포했지만 채승 지서장이 보증을 서서 모두 풀려났다. 그는 나중에 미군 담당관을 만나 “유혈사태를 막고 경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양쪽과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칠곡군 동명면에서도 주민들이 지서로 몰려갔으나 지역 유지 배개발이 경찰과 협상해 충돌을 막았다. 하지만 배개발은 주민과 경찰 사이를 중재했다는 이유로 군정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48년 정부 수립 기념 특사로 풀려났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살해됐다. 항쟁을 막거나 유혈사태를 줄이려고 한 행위조차 처벌의 근거가 된 것이다.

## 공출과 소작료에 쌓인 분노

1946년 영천은 인구 15만5천여 명이 사는 농촌 지역이었다. 해방 직후 귀환동포가 대거 들어오면서 1944년부터 1946년 사이 인구가 26퍼센트가량 늘었다. 인구는 급증했지만 일자리는 부족했고 식량난도 심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농민들에게 쌀과 보리를 정해진 가격에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공출 과정에서 관리들이 농민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영천군 식량계원은 농민들이 보리를 내놓지 않는다며 서로의 뺨을 때리게 했다. 농민들을 보리 운반 차량에 태워 유치장으로 끌고 간 뒤에는 차량 운임 10원과 유치장 숙박료 90원까지 받아냈다. 일제강점기에 공출을 담당했던 관리들이 해방 후에도 다시

공출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 농민들에게 해방은 왔지만 관청과 경찰이 곡식을 빼앗아가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었다.

영천 북부 농촌에서는 공출보다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각했다. 당시 영천의 소작률은 약 60퍼센트였다. 소작농은 자신이 지은 곡식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넘겨야 했고, 흉년이 들거나 보릿고개가 닥치면 다시 지주에게 곡식을 빌렸다. 땅을 빌린 관계는 일상생활의 신분 차별로도 이어졌다. 화북면 주민 함태원은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양반들은 돈 있고 땅 있다고 소작 쥐놓고, 조그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영감에게도 반말하고 사람을 노비나 개 취급했어. 가을에 논 한 마지기 탈곡해놓으면 70퍼센트를 가져갔어요. 설날쯤 되면 양식이 떨어지고 보릿고개 때 되면 마을의 70퍼센트는 못 먹어서 통통 부었어요. 이렇게 농사지어 다 쥐놓고 사람대접 못 받아도 배 굶는 사람은 그거라도 떨어질까 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비감 질렸던 거야.”

농민들이 바란 것은 단순히 땅 한 조각을 얻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대로 자신들을 얹매어온 신분적 차별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다는 열망이 함께 있었다.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이 내건 ‘토지개혁’과 ‘평등한 세상’이라는 구호가 소작농과 머슴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던 이유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모든 지주를 공격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낸 중소지주보다 일제강점기부터 친일행위를 하거나 소작료를 가혹하게 거둔 대지주와 관리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됐다. 영천 전역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이인석과 화북면의 정도영 집안은 여러 주민의 구술에서 대표적인 악덕 지주로 지목됐다. 공출과 소작료에 대한 분노가 친일 관리와 악덕 지주를 향해 집중된 것이다.

## 하룻밤 사이 군청과 경찰서를 장악하다

영천 항쟁은 10월 2일 밤 대구에서 온 시위대 약 50명과 영천군 인민 위원회가 결합하면서 시작됐다. 군 인민위원장 임장춘이 연설했고, 청년조직의 임대식과 이상문, 항일운동가 박학덕 등이 영천시장 상인과 영천중학교 학생들을 이끌었다. 금호면 등 인근 농촌 주민들도 영천읍으로 들어왔다. 참가 인원은 기록마다 크게 다르다. 미군 제6사단 정보보고서는 2천 명, 내무부 치안국은 3천 명, 다른 자료는 1만 명 이상으로 기록했다. 당시 신문에는 영천군 전체에서 5만 명이 나섰으며 영천읍 주민은 거의 모두 참가했다는 당국의 추산도 실렸다. 정확한 인원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영천읍뿐 아니라 군내 모든 면과 많은 마을에서 항쟁이 일어난 사실은 여러 기록과 주민 증언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10월 3일 새벽, 주민들은 영천읍을 포위하고 전화선을 끊었다. 이어 군청과 경찰서, 우체국, 재판소, 등기소, 신한공사 출장소 등을 공격했다. 경찰서를 점령한 주민들은 소총과 권총을 빼앗았다. 경찰과 관리들이 살해됐고, 가혹한 공출을 독려했던 군수 이태수와 대지주 이인석의 집도 공격받았다. 미군 보고서에는 군중이 경찰서를 장악한 뒤 이틀 동안 영천읍을 통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월 4일 오후 미군 순찰대 차량 8대가 영천읍에 도착하기 직전, 항쟁 참가자들은 읍내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10월 3일 아침부터 영천읍의 시장 상인과 학생, 청년들이 트럭을 타고 각 면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현지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 청년조직에 대구와 영천읍의 소식을 전했고, 항쟁은 다시 면 소재지에서 주변 마을로 번져나갔다.

항쟁을 이끈 사람들의 배경은 다양했다. 군 단위 지도자 가운데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지식인과 지역 명망가, 토착 지주가 있었다. 면과 마을에서는 한학자와 지식인, 지역 유지, 면장과

구장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소작농민과 머슴, 시장 상인, 학생 등 청장년층은 항쟁의 선봉에 섰다. 선봉대는 서른 명가량씩 무리를 지어 트럭을 타거나 걸어서 마을을 돌았다. 이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몽둥이를 든 채 팽과리를 치며 주민들에게 항쟁 소식을 알렸다. 영천 주민들은 이들을 ‘몽둥이패’ 또는 ‘작대기패’라고 불렀다. 선봉대가 마을에 들어오면 현지 주민들이 모였고, 이들은 다시 이웃 마을로 가서 항쟁을 전파했다. 항쟁은 대구에서 영천읍으로, 영천읍에서 각 면으로, 다시 면 소재지에서 마을로 퍼져나갔다.

## 주막과 장터, 마을을 잇는 소식통

오늘날처럼 전화나 방송을 통해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없었던 때였다. 농촌에서 사람과 소식이 모이는 곳은 주막과 장터였다. 장날이면 여러 마을의 농민과 상인들이 한곳에 모였다. 이들은 주막과 장터에서 쌀 공출과 소작료, 경찰의 횡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구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쏘았다는 소식도 이곳을 거쳐 마을과 마을로 전해졌다. 항쟁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농촌 마을의 촘촘한 관계망이었다.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품앗이를 했으며, 문중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머슴과 품팔이꾼에게는 함께 일하며 만들어진 조직이 있었고, 상인들에게도 장시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있었다. 새로운 정치조직인 인민위원회와 청년단체는 이러한 오래된 관계 위에서 움직였다.

마을공동체에서는 오랫동안 쌓인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 문중과 문중 사이의 경쟁이 항쟁을 계기로 폭발하기도 했다. 영천 화북면 자천리에는 지주인 정씨 집안과 이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손씨·함씨 집안이 함께 살았다. 정씨 집안이 소작료를 가혹하게 거두면서 집안 사이의 갈등이 깊었다. 10월 항쟁이



일어나자 손씨와 함씨 주민들이 정씨 집안을 공격했다. 항쟁이 진압된 뒤에는 정씨 집안의 정기환이 우익 청년단을 이끌며 보복에 나섰다. 충남에서 파견된 경찰부대와 서북청년단은 우익 청년단의 안내를 받아 자천리 주민 10여 명을 오리장림 숲 등에서 사살했다. 미성년자였던 구반희는 가족이 항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붙잡혔다. 그는 영천경찰서로 끌려가던 차 안에서 경찰에게 짓밟혀 숨졌다. 살아남은 손씨와 함씨 집안 청년 일부는 산으로 들어갔다. 마을 안의 소작 갈등이 항쟁과 보복을 거치며 생사를 건 싸움으로 변한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영천읍 괴연동에서는 부유한 양반층인 밀양 박씨와 가난한 평민층인 반남 박씨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항일운동을 한 지식인이 많았던 밀양 박씨 집안이 10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남 박씨 일부는 이들의 활동을 경찰에 알리고 우익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밀양 박씨 집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청년들은 고향을 떠났다. 계급의 차이만으로 누가 항쟁에 가담하고 누가 반대편에 섰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사례다.

마을 지도자를 따라 공동체 전체가 항쟁에 참여한 곳도 있었다. 화북면 구전동에서는 지주인 황보집이 좌익 지도자로 활동했고, 금호면 도남동에서는 지주이자 광주 안씨 종손인 안재기가 군 인민위원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지주였지만 마을의 소작농과 일가친척들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항쟁이 일어나자 주민 대부분이 이들을 따랐다. 지도자들이 탄압을 피해 산으로 들어간 뒤에도 주민들은 식량을 마련하고 연락을 전했다. 이 마을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좌익 마을’로 지목돼 주민 수십 명이 한꺼번에 학살되면서 공동체 자체가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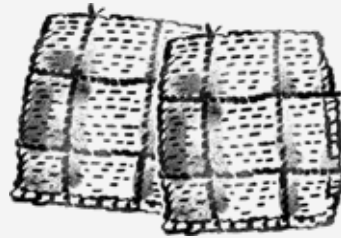
## 반세기 전 농민항쟁을 닮은 ‘몽둥이패’

영천 농민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몽둥이를 든 모습은 19세기 농민항쟁에 참여했던 ‘초군’과 닮았다. 초군은 산에서 땔감과 목재를 구하거나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평소 열 명에서 스무 명씩 무리를 지어 일했고, 큰일이 있을 때는 백 명이 넘는 조직을 이루기도 했다. 1862년 농민항쟁 때 초군조직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항쟁을 이웃 지역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19세기 한학자 강위는 당시의 모습을 “수만의 무리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백건을 두르고 막대기를 가졌다”고 기록했다. 일할 때 쓰던 흰 수건과 몽둥이가 항쟁 때에는 서로를 알아보고 집단의 힘을 드러내는 표시가 된 것이다. 1946년 영천의 ‘몽둥이패’도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평소 쓰던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었다.

영천에서는 1946년보다 앞선 1862년과 1894년에도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1862년 신령에서는 농민 수천 명이 관리들의 부정한 세금 수취에 반발해 관아로 몰려갔다. 농민들은 짚단을 들고 가 아전들의 집에 불을 질렀고, 수령을 붙잡아 항의했다. 감영에서 병력이 왔지만 오히려 농민들에게 쫓겨났다. 1894년에는 과도한 세금과 탐욕스러운 군수에게 반발한 영천 농민들이 민가와 관아에 불을 지르고 군수를 끌어냈다. 반세기가 지난 1946년, 농민들은 친일 군수와 경찰, 악덕 지주를 골라 공격하고 관공서를 점거했다. 경찰서나 면사무소를 장악하면 쌀 수집 기록과 각종 서류를 찾아 불태웠다. 공격 대상과 행동방식에는 19세기 농민항쟁과 닮은 점이 많았다.

그렇다고 1946년의 항쟁이 과거 농민항쟁의 단순한 반복은 아니었다. 해방 후 만들어진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 청년단체가 있었고, 대구에서 시작된 항쟁은 신작로와 철도, 장시를 통해 빠르게 농촌으로 전파됐다. 오래된 마을공동체와 새로운 정치조직이 결합해 항쟁을 이끌었다. 이러한 결합은 농민들이 외부의 명령만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항쟁에 나서는 힘이 됐다. 그러나 각 지역이 고립된 채 움직였다는 한계도 있었다. 군과 마을 단위에서는 수천 명이 결집해 경찰서와 관공서를 장악했지만, 지역을 넘어 항쟁을 지휘할 조직은 없었다. 미군과 다른 지역의 경찰부대가 투입되자 각 지역의 항쟁은 차례로 진압됐다.

경북의 항쟁은 10월 6일 무렵 대부분 진압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체포와 고문, 재판과 학살을 피해 많은 사람이 산으로 들어갔다. 마을 안에서 시작된 갈등은 좌우익의 보복과 유격대 활동으로 이어졌다. 10월 항쟁이 지나간 농촌에는 곧 더 길고 잔혹한 지역 내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상숙, 2016, 『10월 항쟁: 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정해구, 1988, 『10월 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미군 방첩대(CIC), 1946, 「안강 지역 소요 보고서(Report of Angang Area Disturbances)」  
 미군 제6사단, 1946, 「경상도 지역 정보요약: 1946년 10월 경상도 공산주의 봉기(G-2 Summary of Kyongsang, Kyongsang Communist Uprising of October, 1946)」

## 저평가 받는 도시 대구

福



**이정웅**

전, 달구벌 열치는 모임 대표

### 들어가는 말

낙동강이 서, 남부를 감싸 흐르고, 금호강이 동에서 서로, 신천(新川)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며 북쪽은 팔공산이 병풍 역할을 하고, 비슬산이 척추가 되어 기름진 충적평야를 이룬 대구는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뿌리 깊은 고장이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으로 국권 회복에, 2.28로 민주화에 앞장섰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다. 그럼에도 수구 골통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일부 시민은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를 느껴 대구만의 독특한 정체성 즉 자랑거리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승승장구(乘勝長驅) 박전하는 도시

낙동강이 서, 남부를 감싸 흐르고, 금호강이 동에서 서로, 신천(新川)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며 북쪽은 팔공산이 병풍 역할을 하고, 비슬산이 척추가 되어 기름진 충적평야를 이룬 대구는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뿌리 깊은 고장이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으로 국권 회복에, 2.28로 민주화에 앞장섰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다. 그럼에도 수구 골통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일부 시민은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를 느껴 대구만의 독특한 정체성 즉 자랑거리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뿌리 깊은 도시이다.

달서구 월성동에서 구석기 대표적인 유물인 쯔날토기와 흑요석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대구 2만 년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신석기시대 북구 무태동의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대 동천동의 우물 유적과 환호, 태전동의 절굿공이 등은 여느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물과 달리 화려했고, 초기 철기시대 비산동에서 출토된 투겁창(동모, 긴 장대 끝에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쌍날의 칼이 달렸으며, 주로 수레에 세우고 다녔다. 리움 박물관 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투겁창이 중국을 본떠서 만든 데 비하여 한국화된 형태여서 철기시대에 출토된 우리나라 유물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국보로 지정되어 질적으로 우수함이 증명되었다.



월성동 구석기 유물

따라서 대구는 시대별로 화려하고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도시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많은 유적이 훼손되었다. 현, 수성동 일대 고인돌 집단이 택지개발로 지하에 묻히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달서구 월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시대 흑요석은 산지(產地)가 백두산으로 확인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이 표본 100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가 대구에서 700~800km 떨어진 백두산 흑요석인 것으로 밝혔다.

이 백두산에 생산된 흑요석은 영남지역에서 존재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점을 보면 대구는 일찍이 교류가 넓었고 영남지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겨울의 자캄비 **팔공산**과 삼국유사의 산실(産室) **비슬산** ─┐

대구에는 길지답게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2개나 보유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시이다. 즉 1,192m의 팔공산과 1,084m의 비슬산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비법을 전수(傳受) 받은 곳으로, 신라 오악의 중악(中岳)이며 신승겸, 김락 등이 견훤군에게 포위된 고려 태조를 살려냈고, 임란 때는 의병들과 사명당의 승군(僧軍) 활동근거지였으며, 한국동란 때에는 마지막 보류이자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호국의 얼이 깃든 산이다.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불교 개혁 운동을 펼쳐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종단 조계종을 중흥시킨 곳이며, 이 종단의 25개 교구본사 중 2개가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국보 거조암의 영산전, 군위 삼존석굴 등 문화재의 보고이자 생물다양성이 높은 산이다.

또한, 비슬산은 일연(一然) 스님이 62년의 승려 생활 중 37년간 머물며 득도한 산이자 명저 『삼국유사』의 산실이다.

## 진취적이고 역진 시민

다른 도시와 달리 대구는 귀화인들이 정착하여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독특한 도시다. 달성 하(夏)씨, 두릉 두(杜)씨, 대구 빈(賓)씨, 절강(浙江) 장(張)씨 등은 중국계이고, 사성(賜姓) 김해 김씨는 일본계이다.

요즘 내국인으로 타처에 가서 살기 힘 드는 데 수만 리 떨어진 이국(異國)에 살던 그들이 고국 가까운 곳을 제쳐두고 내륙 깊숙한 도시 대구에 정착한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배려한 이외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영남의 두 학파 퇴계학과 남명학이 공존했고, 당쟁이 치열했던 17세기 이후 남인의 땅이었지만, 서인들과 함께했으며, 최근에도 전라도(조재천), 충청도(조병옥), 경기도(목요상) 등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그가 능력이 있으면 기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했다.

대구시민을 “수구 골통”이라고 폄하(貶下)하는 집단은 정의롭고 슬기로운

대구시민의 진면목(眞面目)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 개방적이고 열린 도시다.

또 다른 대구 사람이 진보적(進步的)인 면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집권 자유당 이승만 후보의 상대인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유효투표의 72%를 얻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구는 조국 근대화에 초석을 놓고 산업화를 주도한 민족중흥 세력의 본거지다.

###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

일본에 진 빚을 갚아 그들의 경제적 예속(隸屬)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의 발상지가 대구다. 1907년(순종 1) 1월 29일 서상돈(徐相敦, 1851~1913)의 제의(提議)와 2월 21일 북후정에서 개최된 대구 군민대회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기생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차별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표석

서상돈·김광제·박해령 등 16명이 조직한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당시 이름도 없었던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서 이에 호응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효시가 된 남일동부녀회의 패물 모집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서울의 대한부인회 등이 동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지방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된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관련 기록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지정되었다.

###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현대 예술가의 탄생지 —

시부분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봄은 고양이로다”의 이장희, 국민 가곡의 불리는 “고향 생각” “희망의 나라”의 현제명, “동무 생각” “오빠 생각”의 박태준, 이른바 “석재체(石齋體)”라는 독특한 필법의 서화가 서병오, “사군자”의 대가 서동균, 한국의 고갱이라는 이인성, 사실주의 소설가 현진건, “영화 입자 없는 나룻배”의 감독 이규환, 연극인 홍해성 등 장르별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배출된 예향(禮鄕)이다.

청록파 시인의 박목월, 소설가 김동리, 김원일, 아동문학가 김성도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대구 계성학교에 수학했고, 이육사도 대구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구형무소 옥중에서 발표한 시로 등단했다. 국민화가로 불리는 “흰소”의 화가 이중섭도 마지막 전시회를 대구에서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 여류비행사 권기옥(權基玉), 민간인 여류비행사 박경원도 대구 사람이다.

##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 2.28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대구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민주 운동이다. 이후 마산의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 고대의 4.18 시위에 이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들은 2월 28일 오후 1시 학생 800여 명이 대구 반월당을 거쳐 도청(현, 경상감영공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 규모는 커졌다.

당시 도지사는 학생들에게 “전부 공산당”이라고 한 반면에 시민들은 구타당하는 학생을 말리고, 치맛자락에 모자를 감춰 숨겨주는 부인도 있었다.

1,200여 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고 그중에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가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해 주동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을 석방하게 된다. 하청일(하청호, 대구문학관장의 형) 이 쓴 결의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시위 중 연행되는 학생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 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이 운동은 고교생들이 주체이고, 계획적 조직 시위의 민주 운동 요건을 갖춘 학생운동이었다. 우리 역사상 6.10 만세 사건, 광주 학생운동에 이은 건국 후 일어난 학생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경북고, 경대 사대부고, 대구고, 대구상고(현, 대구상원고), 대구농고(현,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대구공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등 8개교가 참여했다. 2017년에 2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

### 천연기념물 제1호가 있는 땅

지금은 문화재에 번호를 붙이는 일이 사라졌지만, 한때는 국보 제1호 승례문(남대문), 보물 제1호 동대문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 소중한 문화재는 모두 서울에 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나무숲은 대구에 있다.

국토의 1.5 %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소중한 문화재다. 측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남쪽 한계 지역으로, 1,100여 그루가 절벽에 자생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어 단양, 안동, 울진 등 전국 자생지가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조선 초기 대구 출신 대학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대구의 아름다운 10곳을 골라 <대구십영, 大丘十詠>을 노래 했는데 그중에서 제6경을 “북벽향림”이라 하여 측백나무숲을 예찬했다.

##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대구의 랜드마크 달성(達城)

우리 대구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토성(土城)이다. 성벽의 이팝나무, 말채나무, 팽나무, 쉬나무 등 다양한 향토수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삼국시대 쌓은 성으로 높이 4m, 둘레는 약 1,300m 정도이다. 성벽의 아랫부분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조개더미와 각종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대구지방의 중심 세력이 초기 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쌓은 것으로 추정한다.

경주의 월성처럼 평지에 낮은 구릉지를 이용하여 쌓은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초기 성곽의 전형으로 평가 되고 있다.

성벽은 주로 흙으로 쌓았고, 윗부분에는 큰 돌덩어리들이 드러나 후대에 수리(修理)한 것으로 본다. 성안에는 조선 전기까지 군대의 창고와 우물과 연못이 있었다. 성의 서남쪽으로 연결된 구릉 지대에서는 돌방무덤(석실분)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무덤에서 금동관을 비롯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성곽 발달사에 있어 가장 이른 시기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달성군 화원의 성산(城山)이 끝이 뾰족해 “웅(雄) 달성이라고 부르고 그와 달리 중구, 달성은 오목한 것이 여근(女根)을 닮아 자(雌) 달성”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서침(徐忱)이 나라가 필요로 하자 기꺼이 헌납하고 대신 대구 군민의 환곡(還穀)이자 1 말 5되이던 것을 다섯 되씩 감(減)하게 한 미담의 현장이기도 하다.

## 전국에서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한 **대구수목원**

총면적은 781,279 m<sup>2</sup>(236.337평)로 1986년~1990년까지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쓰레기 410만 톤을 매립(埋立)한 장소였다. 조성할 때 “가스가 분출 된다”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침출수가 나온다”며 환경·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를 했으며 인근 주민들도 수목원을 빙자해 또 다른 혐오시설을 지어 괴롭힐지 모른다는 반대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이해시키고 제기한 문제점을 일부 수용하면서 1996년~1997년까지 150만㎡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흙을 받아 6~7m 높이로 복토(復土)하여 악취가 나고 해충이 들끓는 혐오스러운 공간을 생물다양성이 높은 수목원으로 2002년 5월 3일 개원(開園)했다.

현재, 2,050종 450,000본(목본류 750종, 150,000그루, 초본류, 1300종 300,000포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100여 종 1,000점의 선인장, 40종 300여 점의 분재와 300여 점의 수석은 시민의 기증한 것이다.

## 고려 최대의 국책사업, **초조대장경**이 모셔진 도시

고려가 외침을 물리치기 위해 전란으로 나라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책(國策)사업으로 판각한 성보(聖寶) 초조대장경이 당시 수도인 개경(開京)의 큰 절과 왕실 원당(願堂)을 제쳐두고 머나먼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된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옳긴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료는 없다. 대구가 길지(吉地)라는 것 이외 설명을 달리할 수 없다.

판각 시기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현종 재위 1011년~1029년까지로 보는 경향이 많다.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조성 1,000년을 맞아 “대장경 천년 문화축제”를 개최해 우리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처음에는 강화도 선원사(禪源社)에, 나중에는 팔공산 부인사(符仁寺, 또는 夫人寺)에 봉안·보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1232년 (고종 19) 몽고군(蒙古軍)의 별동대에 의해 목판 모두가 불타버렸다. 다만 인본(印本)이 국보(國寶)와 보물로 남아 있으나 아쉬운 점은 대구에는 한 점도 없다는 점이다. 어떤 학자는 판각 기술이 그 후에 만들어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보다 더 우수하다고 한다.

### 성군(聖君) 세종이 선택한 도시 대구

조선 조정에서는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평소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에 빌려주는 의창(義倉)을 운영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이 빌려줄 때 양을 줄이고, 받을 때는 많이 받으며 아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 민폐가 많았다. 이에 세종은 청렴하고 유능한 함양군수 이보흠(李甫欽)을 대구 군수로 임명하여 1448년(세종 30)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오늘날 협동조합 같은 사창(社倉)을 대구에 설치 했다.

1451년(문종 1)에는 경상도, 1461년(세조 7)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1592년 (선조 25) 임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144년 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시작한 이유는 경상도의 중심, 높은 농업 생산성 등을 꼽으나 주민자치 역량이 높은 데 세종이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후 대구에는 서침(徐沈)의 달성 헌납, 손처눌(孫處訥)의 청호지축조, 도성유(都聖兪)의 칠곡향교 부지 회사, 이일우가의 우현서루, 독립지사 문영박(文永樸)의 문중 문고 개방 등으로 이어졌다.





## 맺는 말

뿌리 깊은 도시 대구는 선조들이 물려준 국난 극복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정신이 곳곳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 영지(靈地)다.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 전두환, 북방외교의 개척자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세계 초 일류기업 삼성의 발상지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구가 저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따라서 대구를 폄훼(貶毀)하는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비판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나보다 이웃 이웃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대구 정신을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21세기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 상상에서 행동으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와 2·28민주운동



황 규 진 (영화평론가)

###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역사책 속 위대한 인물들을 먼저 떠올린다. 혁명가와 정치인, 시대를 이끈 지도자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행동했기 때문에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고, 뛰어난 재능보다 용기 있는 첫걸음이다.

#### 〈약력〉 황 규 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재직, 전 LG전자(주) 본사 TV사업부 해외마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2025 KNU 문화다양성 영화추천사 부문 『플로리다 프로젝트』 수상

이러한 사실을 가장 따뜻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2013)이다. 영화의 주인공 월터 미티는 미국의 잡지사 LIFE에서 사진 필름을 관리하는 평범한 직원이다. 그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좋아하는 여성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할 만큼 소심하고, 직장에서도 특별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현실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위기의 순간마다 영웅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 악당과 맞서 싸우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 멋진 주인공이 된다. 현실에서는 한없이 평범하지만 상상 속에서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영화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준다. 아무리 화려한 상상도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상상은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들 뿐,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월터의 삶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미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미티〉

영화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잡지사의 마지막 표지를 장식해야 할 중요한 사진 한 장이 사라지면서부터다. 월터는 사진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익숙한 일상을 벗어난다. 아이슬란드의 거친 바다를 건너고, 광활한 들판을 달리며, 히말라야 설산까지 오르는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살아가던 한 사람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과정에서 월터가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실수하고, 두려워하며, 낯선 환경 앞에서 망설인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화는 행동하는 사람이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제목보다 더 오래 남는 질문이 있다. 과연 월터의 삶을 바꾼 것은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행동이었을까. 물론 상상은 출발점이었다. 상상이 있었기에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상상 자체가 아니라 현실 속으로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아무리 많은 꿈을 꾸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따라온다. 결국 상상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고, 현실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길을 열어 준다.



〈폭발하는 빌딩에서 애완견을 구출해내는 상상을 하는 미티〉



〈직장상사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상상을 하는 미티〉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리의 역사가 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은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지 않았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야당의 선거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키려 했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 앞에서 학생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교실을 나와 거리로 향했다.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게 되는 2·28민주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혁명가도 아니었고,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품은 사람들도 아니었다. 친구들과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들이었을 뿐이다.

그날 학생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뛰어난 능력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은 부당한 현실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품는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린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만 자신의 일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월터가 상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용감한 사람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영화는 월터를 통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춘다.

2·28민주운동이 오늘날까지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 첫걸음 때문이다. 학생들은 거대한 혁명을 시작하려고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부당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이 있었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역사는 바로 그 행동을 기억했다.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결국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되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여 왔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하지만, 그 첫걸음이 있었기에 이후의 변화도 가능했던 것이다.

영화 속 월터가 떠난 여행 역시 목적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슬란드의 절경도, 히말라야의 설산도 결국은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배경에 불과하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집을 나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다. 하지만 행동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했고, 이전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현실에서 해내기 시작했다. 결국 월터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사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미티〉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로 모험을 떠나는 미티〉



〈눈표범을 촬영하기 위해 잠복하는 미티〉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역사적 사건을 결과만 기억한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처음’이 존재한다. 누군가 처음 질문을 던졌고, 누군가 처음 거절했으며, 누군가 처음 거리로 나섰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없었다면 이후의 변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2·28민주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용기가 하나둘 쌓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며 그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보며 상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회를 바꾸는 일은 특별한 영웅에게만 맡겨진 임무가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으며, 공동체를 위해 작은 책임을 다하는 일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이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결국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월터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영웅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2·28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다만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역사를 움직였다. 우리는 영웅이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평범한 시민이 된다. 아마 이것이 영화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가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고 2·28민주운동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들려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일 것이다. 상상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한다. 

## 댄때이 삼남매와 히프이 삼남매



수필가 홍익선

내 아버지는 여섯 자식을 두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둘로 나누어 한쪽에는 ‘댄때이 삼남매’, 다른 한쪽에는 ‘히프이 삼남매’라는 거룩한 별명을 지어 주셨다. 댄때이는 탄탄하다는 뜻으로 바위 위에 올려놓아도 뿌리를 내릴 놈들이고, 히프이는 해파 빠져서 동해바다에 소금을 뿌릴 놈들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 두 부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차별하셨다. 자식들이 집을 찾을 때 맞이하는 표정만으로도 그 정도를 알 수 있었다. 댄때이들이 집에 들어설 때는 “왔나? 왔나?” 하시면서 가락까지 맞춘 하이톤으로 맞았고, 히프이들이 들어서면 짹고도 희미한 목소리로 ‘왔나?’ 하면서 힐끗 눈길만 주고 마는 것이었다.

성분 상 아버지는 댄때이 파에 속하는 지독한 구두쇠이다. 자리에 없을 때 가족들에게 ‘짹돌이 영감’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당사자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식들을 달리 보는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정설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약간의 논밭과 조그마한 방앗간을 물려받은 아버지는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축내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것이 평생의 지엄한 소명이다. 이에 비해 어머니는 전쟁 통에 부모를 잃고 거의 고아의 처지로

시집을 오셨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찢어지게 배가 고팠던 어머니는 그 포원을 풀기라도 하듯이 쌀이며, 보리 같은 것들을 온 동네방네 퍼 날랐다. 집 앞을 슬쩍 지나가는 객이라도 있을라치면 억지로 불러들여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기어이 안기는 성미였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로부터 집구석을 망하게 할 여편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자를 이어받은 땀때이에게는 깊은 애정을, 어머니를 닮은 히프이에게는 버릇처럼 타박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땀때이 중에 한 놈은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냥 제걸음으로 가는 법이 없다. 인사를 하고 간 뒤, 한 오 분이나 십 분쯤 지나면 꼭 되돌아 와서는 마치 잊은 듯 “뭐 없어요?” 하며 한 가지라도 더 챙겨 간다고 했다. 어떤 때는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면서 차 기름 값을 뜯어 간다고도 했다. 구두쇠 위에 더 고수의 구두쇠가 등을 칠 때도 아버지는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저놈은 어떻게든 살아!”를 연발하시며 애지중지하셨다.

또 한 땀때이는 집에 올 때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를 연발하며 징징 거린다고 했다. 늘 비슷한 레퍼토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연말정산 때 동료들은 모두 세금을 환급 받았는데 자신은 거액을 토해 냈다는 것이다. 짐작하건데 그 거액이라 것도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약소한 금액에 불과할 것이다. 이 얼토당토않은 희귀한 화법에도 아버지는 “큰일 났네.”라며 흔쾌히 맞장구를 친다고 했다. 잘 사는 것이 대견하고, 더 잘 살려는 것이 고마워서일 것이다.

히프이 파에 속에는 내가 연전 추석 무렵에 겪은 일이다. 각지에 흩어져 사는 형제 사촌들이 별초를 하러 일제히 모여들었다. 십 수 기가 넘는 묘소들을 해가 저물도록 정리하느라 모두가 지쳐 있었다. 집안의 맏이인

나로서는 그 노고가 미안해서 돌아가는 길에 여비를 한 톨씩 나누어 주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셨다.

“같은 후손으로,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조상을 모시는 일인데, 니가 뭐라꼬 나서서 그런 허튼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니가 그 꼬라지로 살지.”

그때의 ‘니가 뭐라꼬’와 ‘그 꼬라지’라는 말이 내 가슴 속에 피멍의 상처로 남았다.

그런 아버지께서 아흔이 훌쩍 넘으시고는 조금 달라져 보였다. 아마도 설 추석이나 생신을 맞이하여 땀땀이들이 들고 온 보따리가 조금 훌쩍해 보이고, 내미는 봉투도 살짝 얇파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히프이들의 선물은 역시나 무거웠으며, 봉투에도 몇 장 더 들었을 것 같은 감을 잡으신 듯싶다.

어느 날, 마주 앉은 아버지께서 주위를 둘러보며 은근하게 말씀하셨다.

“너저들은 뭐라도 주려고 오는 놈들이고, 저저들은 뭐라도 가져가려는 놈들이다. 갈 때 보면 트렁크가 안 닫혀 밧줄로 묶어 간다.”

그 말씀을 들은 나는 그 동안의 온갖 서러움이 일순간 녹아 사라지는 듯 했다. 이제야 아버지께서 뭘 좀 아시는가 싶어 세상의 모든 히프이를 대신해서 속으로 ‘히프이 만세’를 삼창했다. 

## 홍익선

수필가. 영남대 수필학 박사과정 수료. 수필집 『꽃그늘에 숨어 얼굴을 붉히다』, 『현상과 본질 사이』 『대구수필문학사』 등. 대구시문화상(문학부문), 대구문학상, 현석수필문학상 등.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역임, 현 한국수필문학관장, 계간 《수필세계》 주간

## 1. 2·28대학 제14기 수료식 개최

2·28평생교육원은 지난 6월 10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제14기 2·28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14기 2·28대학은 시민들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교양을 폭넓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강좌는 행복, 지방분권, AI 시대의 안보, 대구문화, 기업가 정신, 부정선거론, 한국 건축문화, 해양 안보, 박물관 견학, 서양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인, 실크로드, 대한민국 국호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함께 나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민주 시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졌다.

2·28평생교육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쉽고 깊이 있게 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함께 넓혀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2. 독서모임 이파리 간송미술관 견학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 독서모임 이파리는 지난 6월 10일 간송미술관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책과 토론 중심의 독서 활동을 문화예술 현장으로 확장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하며 우리 역사와 예술 속에 담긴 시대정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작품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보존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기록과 기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번 견학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책을 통해 쌓아온 생각을 문화예술 현장에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전시 관람 후 소감을 공유하며 예술과 역사, 기록의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은 앞으로도 독서와 문화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3. 「2·28민주운동 66주년 기념 제4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평가회의 개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11일 「2·28민주운동 66주년 기념 제4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3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본선 행사의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참가 접수, 예선 심사, 본선 운영, 무대 구성, 홍보, 안전관리 등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전국 249개 팀, 총 759명이 참가하며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전국 단위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로서의 가능성과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이 2·28민주운동의 자유·민주·참여 정신을 문화예술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다. 또한 행사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다음 대회가 더욱 안정적이고 완성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 평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대회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4. 2·28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12일 2·28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2·28 민주운동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2·28대외협력위원회 이형곤 위원장, 2·28청년위원회 정희준 위원장, 2·28홍보위원회 김교정 위원장이 참석해 각 위원회별 추진 사업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 청년세대와의 소통, 홍보 활성화, 대외 협력 강화 등 사업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2·28민주운동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지닌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각 위원회의 특성과 역할을 살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28정신을 시민사회 속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5.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17일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28민주운동 관련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 기록물 조사 및 정리 방식, 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2·28민주운동 관련 자료의 보존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며 향후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아카이브 사업은 흩어져 있는 자료를 정리

하고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폭넓게 알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자료의 조사와 정리, 디지털화 작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28민주운동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방문 발길 이어져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전시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중구문화원, 범물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전시관을 방문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6월 9일에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25명이 전시관을 찾았으며 6월 20일에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5명과 중구문화원 초등학생 25명이 방문했다. 이어 6월 24일에는 범물노인복지관 6명이 전시관을 견학하며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일어선 역사적 순간을 살펴봤다.

방문객들은 전시 해설과 자료 관람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대와 기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문이 이어지며 2·28



민주운동의 가치가 시민사회 속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전시관을 찾는 시민과 단체들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과 전시 해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7. 2026년 대학생 하계연수 후속 간담회 개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8월 8일(토)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지난 7월 부산에서 진행한 대학생 하계연수 참가자들과 후속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연수에 직접 참여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연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답사와 강연, 분임토의, 발표 등 연수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기억에 남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방식, 참가자 간 교류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누며 실제 참가자의 입장에서 연수 전반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연수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이후에도 서로 교류하며 2·28민주운동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28기념사업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참가자들이 연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활동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8. 배움으로 잇는 2·28정신, 2·28대학 제15기 개강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9월 2일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2·28대학 제15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2·28대학은 시민들이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교양을 폭넓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제15기 과정은 9월 2일부터 11월 18일 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개강 첫날에는 강은희 대구 광역시교육감이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제 15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앞으로도 정치·경제, 예술, 인문학,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배움과 교양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28대학은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2·28 민주운동의 가치를 쉽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9. 2·28청년네트워크 출범, 청년들의 연결은 계속된다.

2·28청년아카데미 수료생들로 구성된 2·28청년네트워크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8월 22일 열린 첫 번째 모임에서는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지능도시 본부 본부장을 초청해 「1960의 질문, 2026의 청년」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AI시대 2·28을 다시 보고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이어 9월 19일 두 번째 모임에서는 '2·28과 대구 바로알기'를 주제로 대구 시티투어를 진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살펴보았다. 오는 10월 모임에서는 2·28 민주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현장에서 되새길 예정이다.





2·28청년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강연, 봉사활동, 현장탐방,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이 2·28민주운동의 가치를 오늘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서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10. 2·28청년아카데미 제10기 과정, 힘찬 출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9월 10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2·28청년아카데미 제10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2·28청년아카데미는 청년들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0기 과정에는 총 44명이 신청했으며, 남성 24명(54.5%), 여성 20명(45.5%)으로 비교적 고른 참여를 보였다. 연령대는 30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3명, 40대 12명으로 다양한 세대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9명, 경북 5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신청자의 71.1%가 대부분의 일정에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해 높은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SNS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접한 신청자가 29명(64.4%)으로 가장 많아 청년층의 온라인 홍보 유입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개강 첫날에는 2·28민주운동 주역이자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용호 교수가 ‘2·28 민주운동과 청년세대’를 주제로 강의하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 청년세대가 이어가야 할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여행웅 원로자문회의 의장도 참석해 제10기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제10기 과정은 강의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과정 중에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단체 관람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안동 현장탐방에서는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선비정신을 연계해 역사와 지역의 가치를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강의를 열리는 12월 3일에는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공저자인 서유현 강사가 ‘2027년 트렌드 미리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다가올 사회 변화와 미래 흐름을 청년들과 함께 전망할 예정이다.

2·28청년아카데미 제10기는 앞으로도 정치·경제, 문화예술, 지역사회, 미래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체험을 통해 청년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의 시각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11.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 하청호 작가와의 만남 개최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은 지난 9월 19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하청호 작가와의 만남「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시를 통해 일상 속 감성과 상상력을 발견하고 문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어린이와 성인 등 지역주민 총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하청호 작가는 자신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동시에 담긴 따뜻한 시선과 일상에서 시적 소재를 발견하는 방법, 동시를 읽고 쓰는 즐거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나눴다.



참석자들은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작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후에는 도서 증정 및 단체 기념촬영과 사인회가 진행됐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작가와 직접 만나 문학과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수상자 명단

### 1. 학교별 출품현황

- 총 192개교, 566명 참여

#### 1) 학교별 출품 및 입상 현황

##### 〈초등학교〉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1      | 가양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2      | 경남밀양초등학교  |       | 1  | 1 |      | 1  | 1 |    | 1  |    |    |    | 1  |
| 3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 1     |    | 1 | 1    |    | 1 |    | 1  |    |    |    | 1  |
| 4      | 금신초등학교    | 8     |    | 8 |      |    |   |    |    |    |    |    |    |
| 5      | 김천금릉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1  |    | 1  |
| 6      | 김포나진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1  |    |    | 1  |
| 7      | 대구동도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8      | 대구새론초등학교  | 2     | 3  | 5 |      | 3  | 3 |    |    | 1  | 2  |    | 3  |
| 9      | 대구대청초등학교  |       | 3  | 3 |      | 3  | 3 |    |    |    | 1  | 2  | 3  |
| 10     | 대구동덕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11     | 대구동인초등학교  | 2     |    | 2 | 2    |    | 2 |    |    |    | 2  |    | 2  |
| 12     | 대구동천초등학교  |       | 1  | 1 |      | 1  | 1 |    |    |    |    | 1  | 1  |
| 13     | 대구영화학교    |       | 3  | 3 |      | 1  | 1 |    |    |    |    | 1  | 1  |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14      | 대구지산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1  |    |    | 1  |
| 15      | 대구황금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16      | 들안길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17      | 별가람초등학교  |       | 1  | 1  |      | 1  | 1  |    | 1  |    |    |    | 1  |
| 18      | 부산가야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19      | 부산화정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1  |    | 1  |
| 20      | 삼육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21      | 서당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22      | 서대전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23      | 서울공항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24      | 성덕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1  |    |    | 1  |
| 25      | 성북초등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26      | 신리초등학교   | 2     |    | 2  |      |    |    |    |    |    |    |    |    |
| 27      | 안산양지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28      | 양도초등학교   |       | 1  | 1  |      | 1  | 1  |    |    |    |    | 1  | 1  |
| 29      | 영신초등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30      | 위례한빛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31      | 유현초등학교   | 2     |    | 2  | 2    |    | 2  |    | 1  |    | 1  |    | 2  |
| 32      | 인천석암초등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33      | 인천이음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34      | 진주금호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35      | 통영제석초등학교 | 1     |    | 1  |      |    |    |    |    |    |    |    |    |
| 36      | 해남동초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초등학교 소계 |          | 38    | 16 | 54 | 17   | 14 | 31 | 0  | 4  | 6  | 9  | 12 | 31 |

## 〈중학교〉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1      | 강동중학교              | 1     |    | 1 | 1    |    | 1 |    |    |    | 1  |    | 1  |
| 2      | 강릉중학교              | 1     |    | 1 | 1    |    | 1 |    |    |    | 1  |    | 1  |
| 3      | 강북중학교              | 1     |    | 1 |      |    |   |    |    |    |    |    |    |
| 4      | 강화여자중학교            | 1     |    | 1 |      |    |   |    |    |    |    |    |    |
| 5      | 경구중학교              | 1     |    | 1 |      |    |   |    |    |    |    |    |    |
| 6      | 경북대학교사범대학<br>부설중학교 | 1     |    | 1 |      |    |   |    |    |    |    |    |    |
| 7      | 공산중학교              | 1     | 2  | 3 |      |    |   |    |    |    |    |    |    |
| 8      | 군산남중학교             | 1     |    | 1 |      |    |   |    |    |    |    |    |    |
| 9      | 규장중학교              | 1     |    | 1 |      |    |   |    |    |    |    |    |    |
| 10     | 남목중학교              | 1     |    | 1 | 1    |    | 1 |    | 1  |    |    |    | 1  |
| 11     | 대건중학교              | 1     | 1  | 2 |      | 1  | 1 |    |    |    | 1  |    | 1  |
| 12     | 덕원중학교              | 1     |    | 1 |      |    |   |    |    |    |    |    |    |
| 13     | 동도중학교              | 1     |    | 1 |      |    |   |    |    |    |    |    |    |
| 14     | 둔덕중학교              | 1     |    | 1 |      |    |   |    |    |    |    |    |    |
| 15     | 동평중학교              | 2     |    | 2 | 1    |    | 1 |    |    | 1  |    |    | 1  |
| 16     | 시지중학교              | 1     |    | 1 |      |    |   |    |    |    |    |    |    |
| 17     | 용산중학교              | 1     |    | 1 |      |    |   |    |    |    |    |    |    |
| 18     | 대구일중학교             | 1     |    | 1 |      |    |   |    |    |    |    |    |    |
| 19     | 학산중학교              | 1     |    | 1 |      |    |   |    |    |    |    |    |    |
| 20     | 대륜중학교              |       | 1  | 1 |      | 1  | 1 |    |    |    |    | 1  | 1  |
| 21     | 동중학교               | 1     |    | 1 |      |    |   |    |    |    |    |    |    |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22     | 대전문지중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23     | 동국대학교사범대학<br>부속중학교 |       | 1  | 1   |      |    |   |    |    |    |    |    |    |
| 24     | 동덕여자중학교            | 1     |    | 1   |      |    |   |    |    |    |    |    |    |
| 25     | 동평여자중학교            | 1     |    | 1   |      |    |   |    |    |    |    |    |    |
| 26     | 동화중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27     | 라운중학교              | 1     |    | 1   |      |    |   |    |    |    |    |    |    |
| 28     | 마석중학교              | 1     |    | 1   |      |    |   |    |    |    |    |    |    |
| 29     | 백현중학교              | 1     |    | 1   |      |    |   |    |    |    |    |    |    |
| 30     | 부산남산중학교            |       | 1  | 1   |      |    |   |    |    |    |    |    |    |
| 31     | 부산진여자중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32     | 북여자중학교             | 1     |    | 1   |      |    |   |    |    |    |    |    |    |
| 33     | 사수중학교              | 1     | 1  | 2   |      | 1  | 1 |    | 1  |    |    |    | 1  |
| 34     | 살레시오여자중학교          |       | 1  | 1   |      | 1  | 1 |    | 1  |    |    |    | 1  |
| 35     | 삼현여자중학교            |       | 1  | 1   | 1    |    | 1 |    |    |    | 1  |    | 1  |
| 36     | 서동중학교              | 1     |    | 1   |      |    |   |    |    |    |    |    |    |
| 37     | 석곡중학교              | 1     |    | 1   |      |    |   |    |    |    |    |    |    |
| 38     | 석적중학교              | 1     |    | 1   |      |    |   |    |    |    |    |    |    |
| 39     | 성곡중학교              | 152   | 36 | 188 | 6    | 3  | 9 |    |    |    | 3  | 6  | 9  |
| 40     | 소신여자중학교            | 2     |    | 2   |      |    |   |    |    |    |    |    |    |
| 41     | 송악중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42     | 신현중학교              |       | 1  | 1   |      |    |   |    |    |    |    |    |    |
| 43     | 아산모산중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44     | 아산중학교   | 2     |    | 2   |      |    |    |    |    |    |    |    |    |
| 45     | 영주중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46     | 오천중학교   | 1     |    | 1   |      |    |    |    |    |    |    |    |    |
| 47     | 와룡중학교   |       | 1  | 1   |      |    |    |    |    |    |    |    |    |
| 48     | 왕선중학교   |       | 1  | 1   |      |    |    |    |    |    |    |    |    |
| 49     | 용인신릉중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50     | 용진중학교   | 1     |    | 1   |      |    |    |    |    |    |    |    |    |
| 51     | 원화중학교   | 6     | 5  | 11  | 1    | 2  | 3  |    |    |    |    | 3  | 3  |
| 52     | 위례중앙중학교 | 1     |    | 1   |      |    |    |    |    |    |    |    |    |
| 53     | 장산중학교   | 1     |    | 1   |      |    |    |    |    |    |    |    |    |
| 54     | 정광중학교   | 1     |    | 1   |      |    |    |    |    |    |    |    |    |
| 55     | 정화중학교   | 2     |    | 2   |      |    |    |    |    |    |    |    |    |
| 56     | 조암중학교   | 1     |    | 1   |      |    |    |    |    |    |    |    |    |
| 57     | 종촌중학교   | 1     |    | 1   |      |    |    |    |    |    |    |    |    |
| 58     | 진주동중학교  | 1     |    | 1   |      |    |    |    |    |    |    |    |    |
| 59     | 천내중학교   | 60    |    | 60  | 1    |    | 1  |    |    | 1  |    |    | 1  |
| 60     | 천안쌍용중학교 |       | 1  | 1   |      |    |    |    |    |    |    |    |    |
| 61     | 청라중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62     | 충남여자중학교 |       | 1  | 1   |      |    |    |    |    |    |    |    |    |
| 63     | 충무중학교   | 1     |    | 1   |      |    |    |    |    |    |    |    |    |
| 64     | 태안여자중학교 | 4     |    | 4   | 1    |    | 1  |    |    | 1  |    |    | 1  |
| 65     | 한울중학교   | 2     |    | 2   |      |    |    |    |    |    |    |    |    |
| 66     | 해남제일중학교 | 1     |    | 1   | 1    |    | 1  |    | 1  |    |    |    | 1  |
| 중학교 소계 |         | 273   | 61 | 334 | 17   | 15 | 32 |    | 4  | 6  | 10 | 12 | 32 |

## 〈고등학교〉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1      | 가온고등학교          | 2     |    | 2  |      |    |    |    |    |    |    |    |    |
| 2      | 강북고등학교          |       | 1  | 1  |      | 1  | 1  |    | 1  |    |    |    | 1  |
| 3      | 강원애니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      | 거창대성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      | 경북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6      | 경북공업고등학교        | 49    | 33 | 82 | 6    | 5  | 11 |    |    |    | 4  | 7  | 11 |
| 7      | 경북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      | 경상고등학교          |       | 1  | 1  |      | 1  | 1  |    | 1  |    |    |    | 1  |
| 9      | 경안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10     | 경인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11     | 경일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12     | 고양예술고등학교        | 2     | 1  | 3  |      |    |    |    |    |    |    |    |    |
| 13     | 과천중앙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14     | 금촌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15     | 김해수남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16     | 대건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17     | 대곡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18     | 대구보건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19     | 대구일마이스터<br>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20     | 대산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21     | 대성고등학교(강원)      | 1     |    | 1  |      |    |    |    |    |    |    |    |    |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22     | 대전반석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23     | 도개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24     | 도농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25     | 동국대학교사범대학<br>부속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26     | 동성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 1  |    | 1  |
| 27     | 동탄국제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28     | 동탄중앙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29     | 등대글로벌스쿨<br>(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30     | 마산제일고등학교            | 1     |    | 1 | 1    |    | 1 | 1  |    |    |    |    | 1  |
| 31     | 미사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32     | 민족사관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33     | 반송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34     | 방어진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1  |    |    | 1  |
| 35     | 봉담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36     | 부개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37     | 부산외국어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38     | 부여여자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39     | 부일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0     | 사동고등학교              | 1     |    | 1 | 1    |    | 1 |    | 1  |    |    |    | 1  |
| 41     | 삼일공업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2     | 상인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3     |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4     | 세명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45     | 송곡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6     | 송악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47     | 송현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8     | 순천효천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49     |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0     | 송의여자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51     | 시지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2     | 심석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53     | 심인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4     | 아름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5     | 안법고등학교           | 1     | 1  | 2 |      |    |   |    |    |    |    |    |    |
| 56     | 안양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7     |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       | 1  | 1 |      | 1  | 1 | 1  |    |    |    |    | 1  |
| 58     | 양정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59     | 여주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 1  |    | 1  |
| 60     | 연초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61     | 오천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1  |    |    | 1  |
| 62     | 옥빛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63     | 용인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64     | 울산강동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65     | 이천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    | 1  | 1  |
| 66     | 인천전자마이스터<br>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67     | 인천하늘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68     | 전주동암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

| 연<br>번  | 학교명              | 출품작품수 |    |     | 입상자수 |    |    | 상별 |    |    |    |    |    |
|---------|------------------|-------|----|-----|------|----|----|----|----|----|----|----|----|
|         |                  | 운문    | 산문 | 계   | 운문   | 산문 | 계  | 대상 | 금상 | 은상 | 동상 | 입선 | 합계 |
| 69      | 조일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70      |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71      | 천안두정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72      | 천안오성고등학교         | 1     | 1  | 2   |      | 1  | 1  |    |    |    | 1  |    | 1  |
| 73      | 천안월봉고등학교         | 1     |    | 1   | 1    |    | 1  |    | 1  |    |    |    | 1  |
| 74      |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75      | 충남삼성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1  |    |    | 1  |
| 76      | 충남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77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 1     | 1  | 2   |      | 1  | 1  |    |    |    |    | 1  | 1  |
| 78      | 충렬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79      | 태안고등학교           | 1     |    | 1   | 1    |    | 1  |    |    | 1  |    |    | 1  |
| 80      | 통영동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1      | 통영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2      | 평내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3      | 한국디지털미디어<br>고등학교 |       | 1  | 1   |      | 1  | 1  |    |    |    |    | 1  | 1  |
| 84      | 한빛고등학교           |       | 1  | 1   |      |    |    |    |    |    |    |    |    |
| 85      | 한성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6      | 현대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7      | 호서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8      | 효성여자고등학교         | 1     |    | 1   |      |    |    |    |    |    |    |    |    |
| 89      | 자카르타한국학교         |       | 1  | 1   |      | 1  | 1  |    |    |    |    | 1  | 1  |
| 90      | 학교 밖 청소년         | 2     |    | 2   | 1    |    | 1  |    |    |    | 1  |    | 1  |
| 고등학교 소계 |                  | 112   | 66 | 178 | 18   | 18 | 36 | 2  | 4  | 6  | 10 | 14 | 36 |

## 2) 입상자 명단

### 1. 개인상

#### 〈운문부문〉

| 번호 | 수상 | 학제   | 출품자 | 작품명                | 학교        | 학년 | 상훈                          |
|----|----|------|-----|--------------------|-----------|----|-----------------------------|
| 1  | 대상 | 고등학교 | 조모현 | 북쪽으로 눕는 새의 그림자     | 마산제일고등학교  | 3  | 행정안전부장관상                    |
| 2  | 금상 | 초등학교 | 최아론 | 내 이름은 김민주          | 유현초등학교    | 5  | 대구광역시장상                     |
| 3  |    |      | 김윤호 | 눌린 글씨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 6  |                             |
| 4  |    | 중학교  | 박신해 | 2월의 빛나는 그들의 노래     | 해남제일중학교   | 1  |                             |
| 5  |    |      | 신수빈 | 꽃샘추위               | 남목중학교     | 3  |                             |
| 6  |    | 고등학교 | 신지은 | 출석                 | 천안월봉고등학교  | 3  |                             |
| 7  |    |      | 이나경 | 지금 아픈 건 봄비 같은 거였다. | 사동고등학교    | 3  |                             |
| 8  | 은상 | 초등학교 | 최효진 | 묻고 싶어요             | 대구지산초등학교  | 6  | 2·28<br>민주운동<br>기념사업<br>회장상 |
| 9  |    |      | 박서윤 | 여정을 담고 있는 햇빛       | 김포나진초등학교  | 4  |                             |
| 10 |    |      | 진민경 | 창문 위의 발자국          | 성덕초등학교    | 6  |                             |
| 11 |    | 중학교  | 나예원 | 어린 새싹들의 봄          | 천내중학교     | 2  |                             |
| 12 |    |      | 장은유 | 기억의 계절             | 태안여자중학교   | 3  |                             |
| 13 |    |      | 김가현 | 그 날의 춤             | 대구동평중학교   | 3  |                             |
| 14 |    | 고등학교 | 백수아 | 벽에 난 금             | 오천고등학교    | 1  |                             |
| 15 |    |      | 최예나 | 이름 없는 봄            | 방어진고등학교   | 2  |                             |
| 16 |    |      | 김대영 | 함성의 소망             | 태안고등학교    | 1  |                             |
| 17 | 동상 | 초등학교 | 현지아 | 자라나는 민주주의          | 대구동인초등학교  | 5  | 2·28<br>원로자문<br>위원장상        |
| 18 |    |      | 김건호 | 불사조의 여정            | 유현초등학교    | 6  |                             |
| 19 |    |      | 곽희원 | 우리가 그려나가는 민주주의     | 부산화정초등학교  | 5  |                             |
| 20 |    |      | 문지현 | 예쁜꽃                | 대구동인초등학교  | 6  |                             |
| 21 |    |      | 우민서 | 열세 살의 비행           | 김천금릉초등학교  | 6  |                             |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

| 번호 | 수상 | 학제   | 출품자 | 작품명                         | 학교       | 학년 | 상훈                   |
|----|----|------|-----|-----------------------------|----------|----|----------------------|
| 22 | 동상 | 중학교  | 정유빈 | 매화꽃                         | 대구성곡중학교  | 1  | 2·28<br>원로자문<br>위원장상 |
| 23 |    |      | 김태현 | 독배기                         | 대구성곡중학교  | 1  |                      |
| 24 |    |      | 진민소 | 정정사항                        | 강릉중학교    | 3  |                      |
| 25 |    |      | 권규원 | 입춘                          | 울산강동중학교  | 3  |                      |
| 26 |    |      | 이하린 | 시나브로                        | 삼현여자중학교  | 3  |                      |
| 27 |    | 고등학교 | 서민수 | 흰 색의 물결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28 |    |      | 김시훈 | 난 자유를 원했다                   | 경북공업고등학교 | 2  |                      |
| 29 |    |      | 고나령 | 참는 것보다 어려운 일                | 경북공업고등학교 | 2  |                      |
| 30 |    |      | 표주영 | 무궁화로 피어난 봄                  | 동성고등학교   | 2  |                      |
| 31 |    |      | 박정빈 | 결석 처리                       | 학교 밖 청소년 |    |                      |
| 32 | 입선 | 초등학교 | 김다혜 | 228 함성                      | 서당초등학교   | 4  | 심사<br>위원장상           |
| 33 |    |      | 신예안 | 함께 사는 세상                    | 안산양지초등학교 | 4  |                      |
| 34 |    |      | 김민지 | 2.28을 기억하는 나무               | 대구삼육초등학교 | 5  |                      |
| 35 |    |      | 김율곡 | 교복 단추 하나                    | 서대전초등학교  | 5  |                      |
| 36 |    |      | 신지후 | 빛과 바람부는 날에서 - 2.28<br>을 위하여 | 서울공항초등학교 | 6  |                      |
| 37 |    |      | 오채연 | 불씨                          | 가야초등학교   | 6  |                      |
| 38 |    |      | 박지빈 | 봄바람이 전해준 이야기                | 해남동초등학교  | 5  |                      |
| 39 |    | 중학교  | 류지연 | 멈춰 있던 태엽이 돌아간 날             | 대구성곡중학교  | 2  |                      |
| 40 |    |      | 오도연 | 숨이 바람이 되어                   | 대구성곡중학교  | 3  |                      |
| 41 |    |      | 김도현 | 전등                          | 대구성곡중학교  | 3  |                      |
| 42 |    |      | 남아영 | 늦어버린 그 해의 봄                 | 대구성곡중학교  | 3  |                      |
| 43 |    |      | 이나현 | 침묵                          | 원화중학교    | 3  |                      |
| 44 |    |      | 김우현 | 돋을별                         | 용인신릉중학교  | 3  |                      |
| 45 |    |      | 조소영 | 자유의 발걸음                     | 송악중학교    | 1  |                      |

| 번호 | 수상 | 학제   | 출품자 | 작품명                | 학교       | 학년 | 상훈         |
|----|----|------|-----|--------------------|----------|----|------------|
| 46 | 입선 | 고등학교 | 윤선경 | 들풀의 숨결, 오늘의 바람이 되어 | 부여여자고등학교 | 2  | 심사<br>위원장상 |
| 47 |    |      | 지연호 | 대구, 이월의 끝날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48 |    |      | 이태규 | 첫 번째 종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49 |    |      | 강준우 |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 경북공업고등학교 | 2  |            |
| 50 |    |      | 정원준 | 회색빛 햇불             | 대구대건고등학교 | 3  |            |
| 51 |    |      | 서지민 | 청춘의 서시             | 이천고등학교   | 1  |            |
| 52 |    |      | 황하람 | 우리의 교복은 차갑지 않다     | 경인고등학교   | 2  |            |

### 〈산문부문〉

| 번호 | 수상 | 학제   | 출품자 | 작품명                 | 학교         | 학년 | 상훈                          |
|----|----|------|-----|---------------------|------------|----|-----------------------------|
| 1  | 대상 | 고등학교 | 정현우 | 빵점짜리 답안지            |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 2  | 행정안전부<br>장관상                |
| 2  | 금상 | 초등학교 | 김지연 | 2·28공원에서 찾아낸 용기     | 경남 밀양초등학교  | 5  | 대구광역시<br>교육감상               |
| 3  |    |      | 김송윤 | 한 걸음이 역사가 될 때       | 별가람초등학교    | 5  |                             |
| 4  |    | 중학교  | 김나영 | 질문받지 않는 자유          | 살레시오여자중학교  | 3  |                             |
| 5  |    |      | 김정민 | 나는 2.28을 아나         | 사수중학교      | 2  |                             |
| 6  |    | 고등학교 | 전지후 | 1960년, 가장 강한 신호     | 대구경상고등학교   | 1  |                             |
| 7  |    |      | 고건울 | 다만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강북고등학교     | 2  |                             |
| 8  | 은상 | 초등학교 | 고보미 | 호랑이 굴에서 피어난<br>민주주의 | 부산성북초등학교   | 5  | 2·28<br>민주운동<br>기념사업<br>회장상 |
| 9  |    |      | 엄시준 | 100년을 지켜낸 용기        | 대구새론초등학교   | 5  |                             |
| 10 |    |      | 권은혁 | 내가 손을 들었던 날         | 인천석암초등학교   | 4  |                             |

## 제26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 학교별 출품 현황 및 입상자 명단

| 번호 | 수상 | 학제   | 출품자 | 작품명                                            | 학교                  | 학년 | 상훈                          |
|----|----|------|-----|------------------------------------------------|---------------------|----|-----------------------------|
| 11 | 은상 | 중학교  | 고규진 | 들풀                                             | 부산진여자중학교            | 3  | 2·28<br>민주운동<br>기념사업<br>회장상 |
| 12 |    |      | 박에서 | 그때 너는 어떤 선택을 했니?                               | 대전문지중학교             | 2  |                             |
| 13 |    |      | 김단  | 닫힌 문(門), 열린 문(問)                               | 영주중학교               | 2  |                             |
| 14 |    | 고등학교 | 황경석 | 맨 위 단추                                         | 심석고등학교              | 3  |                             |
| 15 |    |      | 황민서 | 백만 학도여                                         | 충남삼성고등학교            | 1  |                             |
| 16 |    |      | 이지예 | 시린 계절 너머의 따스함을<br>가장 먼저 믿은 당신께                 | 김해수남고등학교            | 2  |                             |
| 17 | 동상 | 초등학교 | 허지우 | 대구의 또 다른 이름,<br>민주주의의 첫 걸음                     | 대구영신초등학교            | 5  | 2·28<br>원로자문<br>위원장상        |
| 18 |    |      | 김채원 | 달콤한 일요일을 빼앗긴 언니<br>오빠들의 용기                     | 대구새론초등학교            | 5  |                             |
| 19 |    |      | 김나은 | 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br>만난 용기                         | 대구대청초등학교            | 4  |                             |
| 20 |    |      | 김채영 | 학생들은 괜찮았을까?                                    | 대구새론초등학교            | 5  |                             |
| 22 |    | 중학교  | 이승민 | 라일락 향기 속에서 만난 별,<br>그리고 2·28의 봄                | 대구청라중학교             | 2  |                             |
| 23 |    |      | 이지민 | 잊힌 시작을 기억하다                                    | 동화중학교               | 2  |                             |
| 24 |    |      | 정원혁 | 봄을 향한 첫걸음                                      | 대구대건중학교             | 1  |                             |
| 25 |    |      | 이정호 | 민주주의의 봄을 피워 낸<br>첫걸음, 2·28민주운동과 그<br>이후의 민주화운동 | 아산모산중학교             | 3  |                             |
| 26 |    |      | 임미정 | 1960년 2월 28 2·28민주화<br>운동 글쓰기                  | 대구성곡중학교             | 2  |                             |
| 27 |    | 고등학교 | 허성울 | 푸른 제복의 거울, 시들지<br>않는 봄을 위하여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28 |    |      | 양승주 | 대구 리벤지                                         | 천안오성고등학교            | 2  |                             |
| 29 |    |      | 김가은 | 새롭게 알게 된 2.28<br>민주운동                          | 여주고등학교              | 2  |                             |
| 30 |    |      | 백온유 | 시간의 무게                                         | 송악고등학교              | 1  |                             |
| 31 |    |      | 임동빈 | 담장이 신조를 가져도<br>될까요?                            | 동국대학교사법대학<br>부속고등학교 | 3  |                             |

| 번호 | 수상 | 학제   | 출품자        | 작품명                                             | 학교               | 학년 | 상훈         |
|----|----|------|------------|-------------------------------------------------|------------------|----|------------|
| 32 | 입선 | 초등학교 | 고은서        | 2·28 민주운동                                       | 양도초등학교           | 6  | 심사<br>위원장상 |
| 33 |    |      | 권정우        | 용기 있는 학생들의 햇불처럼<br>번지는 외침                       | 대구대청초등학교         | 4  |            |
| 34 |    |      | 정유주        | 나를 되돌아보게 된 2.28<br>민주학생운동                       | 대구동천초등학교         | 5  |            |
| 35 |    |      | 이윤한        | 민주주의의 첫 햇불 2.28<br>민주운동                         | 대구대청초등학교         | 5  |            |
| 36 |    |      | 김준규        | 희생으로 그릴 수 있는 현실                                 | 대구영화학교           | 6  |            |
| 39 |    | 중학교  | 김동윤        | 민주주의의 나무                                        | 대구성곡중학교          | 3  |            |
| 40 |    |      | 이철준        | 고등학생 세상을 위해<br>결석하다                             | 대구성곡중학교          | 3  |            |
| 41 |    |      | 임제민        | 학생들의 외침, 역사가 되다                                 | 대구대륜중학교          | 1  |            |
| 42 |    |      | 이나영        | 2월의 외침, 4월의 함성                                  | 원화중학교            | 3  |            |
| 43 |    |      | 김시유        | 차마 내닫지 못했던 한걸음에는                                | 원화중학교            | 2  |            |
| 46 |    | 고등학교 | 황유찬        | 반월당에서 만난 얼굴들                                    | 한국디지털미디어<br>고등학교 | 1  |            |
| 47 |    |      | 권하연        | 순응이라는 안전지대, '왜'<br>라는 도화선                       | 자카르타한국학교         | 3  |            |
| 48 |    |      | 김글렌<br>마띠오 | 국격을 넘어 피어난 봄:<br>필리핀에서 온 학생이 바라본<br>2·28 민주운동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49 |    |      | 안지은        | 우리가 남은 담장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50 |    |      | 오준서        | 일요일에 울린 종소리 1960<br>년 2월 28일의 대구, 그리고<br>지금의 우리 | 경북공업고등학교         | 1  |            |
| 51 |    |      | 안호연        | 태양을 향해 뻗은 손, 평화의<br>물결이 되다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 1  |            |
| 52 |    |      | 방재현        | 교복에 스며든 온기, 그날의<br>봄을 기억하며                      | 경북공업고등학교         | 3  |            |

## 2. 단체상

| 순번 | 입상학교명    | 훈격        | 비 고         |
|----|----------|-----------|-------------|
| 1  | 경북공업고등학교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 다수응모 및 성적우수 |
| 2  | 대구성곡중학교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 다수응모 및 성적우수 |
| 3  | 대구새론초등학교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 다수응모 및 성적우수 |

## 3. 지도교사상

| 순번 | 지도교사명 | 훈격              | 비 고      |
|----|-------|-----------------|----------|
| 1  | 김승욱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상 | 경북공업고등학교 |
| 2  | 박경연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상 | 대구성곡중학교  |
| 3  | 이근철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상 | 대구새론초등학교 |

##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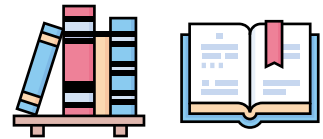
###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대구명덕초등학교 옆)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 구분       | 일반 자료실      | 유아·어린이자료실 | 디지털자료실      |
|----------|-------------|-----------|-------------|
| 평일 (화~금) | 09:00~19:00 |           | 09:00~18:00 |
| 주말 (토~일) | 09:00~17:00 |           |             |

### 2.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 (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다자녀회원은 1인 20권, 20일 대출가능
- 관외 대출중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 3. 유의사항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 (무인기기 반납불가)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 (연장불가)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 053-257-2280

##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 1.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금요일 14시~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12시)

### 2.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세무상담실
- ☎ 053-217-0228



발행인 광대훈

편집인 백재호

편집위원 김상진, 김약수, 이은경, 조두진, 하청호

발행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228.or.kr

인쇄 2026년 10월

발행 2026년 10월

인쇄처 성심인쇄

- 『2·28햇불』은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28햇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2·28햇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 『2·28햇불』 구독 중단 요청 ☎ 053-247-2285

